

민족의 운명을 개척할 불패의 애국대오

제2기 한총련 출범

오는 27일부터 3일간 조선대에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의장=김현준·부산대 총학생회장, 이하 한총련) 제2기 출범식이 '자주의 시대! 그 길에 빛나는 영광! 미국반대 김' 영삼타도의 자랑찬 성전에서 통일 조국건설로 내달리는 청춘은 승리한다'라는 총기치를 내걸고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광주 조선대에



“들어라 양키야!” 지난 21일 시립대에서 열린 '5.18 광주민주화운동 및 진정해 동지 민족자주권 수호를 위한 범청학련 결의대회'에 참가한 2천 여명의 학생들은 한반도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미국과 김영삼 정권을 규탄하며 성조기를 불태우고 있다. (김소영 기자)

본교 야구부 4강 진출 쾌거

준결승서 고려대에 아쉽게 패배

제44회 백호기 전국종합야구선수권대회에서 본교 야구부가 4강에 진출했으나 어제(24일) 열린 준결승서 고려대에 4:0으로 졌다. 그동안 전적을 보면 지난16일 원광대와 첫경기에서 14:5, 서울대와 15:1, 경희대와는 8:4로 승리했다. 지난 22일 경희대의 경기에서는 연장10회까지가는 접전 끝에 김덕환(체고 2)군의 완투에 힘입어 8:4로 대연전극을 벌인 바 있다.

총운위, 중구예술제 논의 체육부 문제소위 구성

총학생회 운영위원회(이하 총운위)가 △중구 예술제(가칭) 제안 △체육부 문제 △졸준의 사태 논의 등의 안건을 가지고 지난 24일 총학생회의실에서 열었다. (권연기사 11면)

이날 회의에서 먼저 예술대 학생회(의장=이종필·미술4)는 중구 예술제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다음 회의까지 기획초안을 작성해 구체적인 의의를 갖기로 했다. 이종필 예술대 학생회장은 “중구 예술제는 비단 예술적인 면뿐만 아니라 학술, 문화 전반에 걸친 행사가 될 것”이라 말하고 “기간은 9월 초에서 일주일정도로 잡고 있으며 중구 전체를 포괄하는 행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총운위에서는 실질적인 해체 위기까지 도달한 체육부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이의 해결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소위원회는 사과대, 경성대, 사범대 학생회장들을 주축으로 구성되었으며 현 체육부 학생들과 결핵해 활동해 나갈 예정이다.

불교학술연구발표회

대한불교학회(회장=김영태·불교학)에서는 제21회 춘계 불교학술연구발표회를 ‘삼론사상의 현대적 조명’이라는 주제로 오는 27일 오후 1시 동국대(관 306)에서 개최한다. 제목 및 발표자는 다음과 같다.

△승랑대사의 중국불교사상사상 위치 (김영태·불교학) △용수와 원효: 삼론사상을 중심으로 (한기두·원광대) △삼론교화의 현대적의의 (김인덕·불교학) △서경에서의 중관학 연구 동향: 연구사와 문제점 (김용표·불교학)

수강신청 6월 8일 예정

교무처(처장=정병조·국민윤리학)는 다음학기 수강신청을 위한 강의계획서를 배포한다. 수강신청은 강의 담당자가 완전히 결정되지 못한 사유로 당초 6월 1일 예정이었으나 6월 8일쯤으로 연기된다.

의 생활·학문·투쟁의 공동체 한총련의 제2기 출범식 전체일정 및 세부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7일: 오후 3시-출범식 사수대 결의대회 및 시내선전, 5시-전국 백만학도 집결 완료, 8시-전야제 행사로 '71년 구국운동의 역사, 젊음을 불살랐던 열사들, 전대협에서 한총련까지의 자랑찬 투쟁 그리고 현 거점과 위선의 문인독재 시대에서 청년의 삶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의 문화공연과 의장단 인사, 백만청년의 애국축제 등의 행사가 진행된다. 밤12시-전야제 이후 간단한 분임토의를 갖고 다음날 일출준비후 취침.

△28일: 오전 9시-부분계열별 행사와 상설행사 진행, 오후 2시-집중상설행사로 출범마당 등 대규모 행사 진행, 오후 4시-지역별 사전결의 및 식사, 오후 6시-제2기 학자출범식, 오후 7시-제5기 조동출범식 개최, 오후 8시-본 출범식으로 축사연대와 제2기 한총련의 방향 모색, 의장 용립식과 출범식연 이후 문화공연이 이어진다. △29일: 오전 9시-시내선전을 작성 및 지역별 결의대회, 오전 11시-백만학도 출정식 및 평화대행진과 시내선전전, 오후 3시-도청 앞에서 광주시민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밖에 한총련 측은 준비기간중 '수입개방 반대 서명운동'과 '80년 광주학살 추모 고발장' 접수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한총련 출범식 기념 물품을 각 대학에서 판매하고 있다. 본교에서는 한총련 출범식을 맞아 지난 24일 장기수 권내기 선선과의 좌담회 및 중앙노래패 '아리랑'정기 공연이 열렸고, 오늘(25일) 동노협 주최로 제7회 통약 통일노래 한마당이 오후 5시30분에 만해광장에서 있을 예정이며 오후 12시 불상앞에서 민속 탈춤 정기 공연이 열린다.

한편 한총련 산하 '조국통일위원회'와 '정책위원회'가 북한의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수용하는 등 친북·이적활동 양상이 뚜렷하다는 혐의 아래 대검공안부가 이들의 이적성에 대해 전면 수사에 들어가고 또 한 이적단체로 규정된 '조국통일법 민족청년학생연맹'이 한총련 출범식에서 회의를 열어 대북한 철축 등을 시도할 경우 강경대응할 것임을 밝힌에 따라 긴장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이에 한총련측은 “출범식때 북한이나 해외단체와 전화통신 등의 접촉을 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출범식이 평화적이고 합법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정부와 광주시가 협조해줄 것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한총련 측은 준비기간중

분당한방병원 기공

1백 병상규모로 오는 27일 예정

동국분당한방병원신축에 따른 일찰이 지난 12일 주식회사 서광건설로 낙찰돼 오는 27일 기공식을 가질 예정이다. 지난 4월21일 입찰시 업체제시안이 학교측 예정기에 미치지 못한 관계로 유찰된 바 있는 이번 신축병원의 공사기간은 1년 6개월로 총 공사비는 약49억 5천만원이 책정됐다. 학교측에 의해 최종점검된 신축병원의 규모는 연건평 2천2백45평에 지하2층 지상5층이며 1백병상규모로 교육연구시설로는 강의실 2개, 교수연구실 3개, 예비실 2개가 구비될 예정이다.

한편 의료원의 한 관계자는 동국분당 한방병원의 신축에 대해 “지금까지 겪었던 한의학 실습공간 부족의 해결과 불교적 의료시회를 보다 폭넓게 배울수 있어 신축에 따른 의미가 깊다”고 밝혔다.

도서기증 감사패 수여

고 김경태교수의 도서기증에 대한 감사패 수여가 지난 19일 오전 11시에 총장실에서 있었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고 김교수의 미망인인 박희숙여사가 대신 감사패를 받았다. 기증된 도서는 한국 근대사 및 한일관계사서적 1만여권으로 지난달 19일에 기증됐다.

교수총칭

△한상범(법학)=한국법학교수회가 제정한 '현안 법학 저자상'을 지난 23일 수상. △한봉희(법학)= '회간기념논문집' 편집이 다름달 3일,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 볼룸에서 있을 예정.

보리수 캠퍼스와 아란야

불타는 평생을 통하여 가르치는 일을 쉬지 않으셨던 분이요. 그런만큼 그 분 주위에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로 붐볐고, 이것이 때로는 불타를 괴롭게 해드리기도 했던 것 같다. 초기 경전(유다나)에 불타가 코삼비의 고사리 동안에 계시는 때 비구 비구니, 남녀 신도, 국왕과 대신, 심지어는 이교도와 그들의 제자들까지 모여들어 이것저것 묻고 번거롭게 하는 일이 여러 날 계속되자 시자에게도 알리지 않은채 홀쭉 무리를 떠나 숲속으로 들어가 홀로 선정에 드신 적도 있음을 전하는 기록에서 우리는 그것을 짐작할 수 있다. 불타께서 번잡을 피해 조용한 숲속으로 들어가신 태서도 옛보이지만 원래 수행자가 머무는 처소를 아란야(aranya)라 한다. 산림(山林) 또는 적정처(寂靜處)·산정처(無聲處) 등으로 번역되는 말이다. 그래서 지금도 절을 아란야(阿蘭若) 혹은 줄여서 난야(蘭若)라고 부르기도 한다. 수행은 자기와 세계를 관조하는 작업이며 동시에 내면의 심화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그곳은 일단 외부의 번잡과 원효로부터 멀리 떠나야 한다. 청정하고 고요한 곳이어야 하며, 무익한 논이나 다툼이 없는 환경이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점에 있어서라면 대학의 캠퍼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이미 고전적이고 상투적인 말로 들릴지 모르지만, 그래도 대학은 진리를 탐구하는 전당이고 그것을 가르치는 도

량이다. 그렇다면 대학의 캠퍼스란 당연히 이에 합당할만하게 우선 안전되고 차분하고 조화롭고 질서가 있어야 할 것임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우리 남 할것 없이, 오늘의 대학을 대부분은 그렇지가 못한게 사실이다. 현실참여라는 명분 아래, 대학은 정치적 이슈나 경제·사회적 현안 등 외부의 일들로 항상 번잡하다. 뿐만 아니라 캠퍼스 곳곳에 이성적 논리와 학문적 대론보다는 감정을 앞세운 주장과 호구가 난무하고, 분별없는 소음과 무질서가 구석구석에 널려 쓰러져처럼 넘쳐나고 있다. 진리탐구의 전당 교육의 도량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광경들이다. 아란야에서 수행을 통해 깨달은 지혜는 수행자 자신의 가치에서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세상을 구제하는 힘이 되고 자비가 된다. 마친지라도 대학의 캠퍼스 곳곳에서 창출해내고 연마하는 지식과 인격은 그 자신의 문명을 증진시킬 에너지가 된다. 수행자가 그곳(無聲處)에서 지혜를 일구며 환화를 느끼듯 대학은 캠퍼스에서 진리탐구와 가르치는 일을 통해 가치를 누려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캠퍼스에서 번잡과 소음과 무질서를 몰아내자. 대학인에게는 캠퍼스가 끝 아란야여야 한다. **李 達 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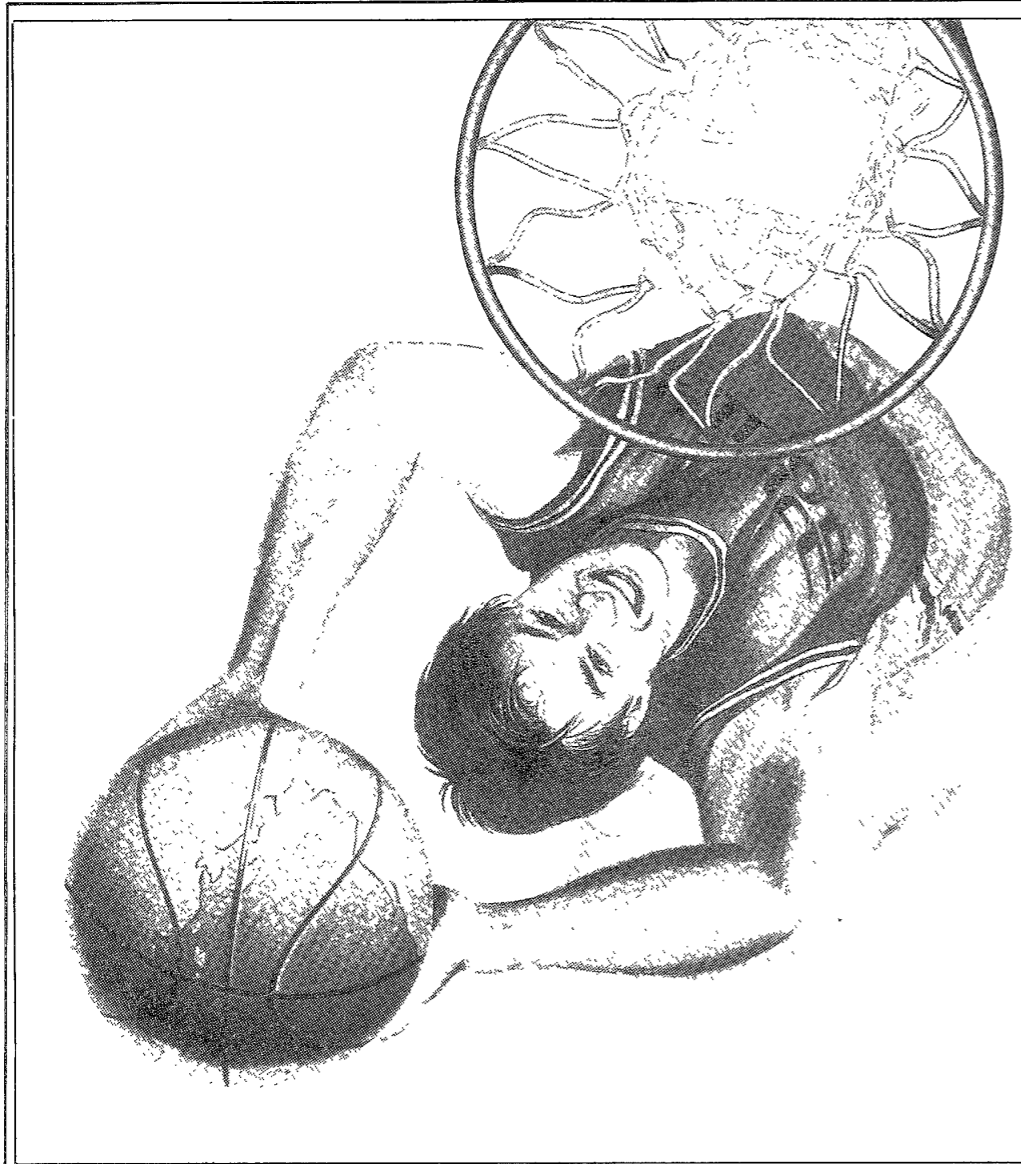
제36기 수습기자·추가모집

대학언론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본사에서는 우리시대를 예리한 필명으로 파헤쳐 나갈 의식있는 남녀 수습기자를 모집합니다.

- ①모집인원: 서울 및 경주캠퍼스 00명
- ②응시자격: 1학년 남·여 재학생
- ③모집분야: 일반 및 문화·사건기자
- ④제출서류: 본사 소정양식 1통, 명함판사진 1매 (지침서는 본사 총무부에서 배부중)
- ⑤원서접수: 서울 6월 2일(목) 오후 4시까지, 경주 6월 2일(목) 오후 4시까지
- ⑥시험일자: 서울 6월 2일(목) 오후 5시, 경주 6월 2일(목) 오후 5시
- ⑦시험과목: 1차 필기-상식·논술(문화·사건지원은 실기) 2차 면접-1차 합격자에 한함
- ⑧원서제출처: 본사 총무부
- ⑨시험장소: 학림관 J201(서울캠퍼스) 원효관 A301(경주캠퍼스)

※학생기자에게는 규정에 의해 장학금과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합니다.

동대신문사



세계를 향한 파워 덩크슛

영원한 승자도 영원한 패자도 없는
냉철한 세계시장—
세계의 경제를 주름잡던 어제의 강국도
오늘은 더이상 변화를 주도해 나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제, 더 넓은 곳을 보고 뛰어야 합니다.

더 좋은 건축자재를 생산하는—(주)금강
세계적 명성의 페인트, 수지, 실런트—고려화학
뛰어난 설계와 완벽한 시공—금강종합건설
이들이 바로 더 넓은 세계시장을 바라보며
철저한 인제양성과 끊임없는 기술개발로
국제 경쟁력 강화에 힘쓰는 우리의 자존심입니다.

세계는 바로 우리가 누벼야 할 무한한 코트—
금강·고려가 뛰고 있습니다.

금강·고려

▲철사 금강 ▲고려화학 ▲금강종합건설

자유 발언대

무엇을 할 것인가

— 노코멘트가 미덕인 사회에서

현행 사립학교법은 총장 선출을 법인 이사회의 고유권한으로 못 박고 있다. 따라서 총장을 어떻게 선출할 것인가 하는 논의는 실정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은 대학 사회에서 중요한 현안이며 갈등요인이다. 대학에서 총장 선출을 어떻게 하는가는 곧 그 대학의 민주화를 가능하게 하는 척도로서 인식되고 있다. 총장 선출의 논의 과정은 대학 구성인의 민주적 의식을 반영한다. 따라서 이상적인 제도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민주화의 과정에서 만들어진 제도가 아닐 경우에는 갈등이 표출되기 마련이다.

올해 노동조합에서 제시한 단체교섭의 가장 중요한 안건은 '총장 선출제도의 마련'에 관한 사항이었다. 단체교섭으로 총장선출을 거론하는 이유는 논의의 공식성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노동조합에서 제시한 "학내 구성원들이 민주적으로 합의한 총장후보의 추천제도에 관한 인장"에 대하여 학교측은 어떠한 공식적 입장 표명도 하지 않았다. 교수회도 총장후보도 이웃집 불구경하듯 했다. 노코멘트가 가장 지능적인 정치적 수사인 경우도 있다. 총장 선출 논의에 있어서 동국인들은 대단히 정치적이다.

노태우 정권이 대학 자율과 정체를 표방하면서 가장 먼저 자율과 조지를 취한 것이 등록금 책정의 자율과 시책이었다. 그 결과 학생들과 학교당국은 매년 임금협상보다 더 격렬하게 초보적인 등록금 협상의 악순환을 되풀이해왔다. 대학의 총장들과 기획실장들이 매년 등록금 인상의 가이드 라인을 답답하기 위하여 거창한 회의의 개최하였으며, 학생들은 전국적 차원의 교육재정 확보 연대 투쟁을 전개하기에 이른다. 어른들은 고물하고 젊은이들은 정의롭지만 무모하며 단순하다. 어찌되었든 불과 4, 5년 사이에 대학 재정의 규모는 외형적으로 2배 이상 커졌으나 등록금 의존률은 여전히 다.

대학의 민주화와 자율화는 지금 교정에서 구호만 난무한 채 표류하고 있다. 대학은 지금 황당하게도 정부로부터 언론으로부터 민주화와 자율화의 능력을 의심받고 있다. 때로는 존엄한 꾸밈음을 당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큰 문제는 대학내에서 민주화를 냉소하고 자율화를 함멸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노코멘트 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미덕이다. 우리는 지금 그것을 감수받고 있다. 무엇을 할 것인가.

김윤길
(직원노조 사무국장)

열린 글터

개성있는 목소리를 가진 동대인을 찾습니다. 독자여러분의 생각이 담긴 글, 사진, 만화를 보내주세요.

책임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문의는 (02)260-3491-2 (0561)770-2057 하이텔 (ID: 2603491, press11)

5월은 어떤 의미를 전하는가

역사적 의의 되새겨야

역사란 민중의 치열한 투쟁의 수레바퀴며, 곧 사회변혁의 동력이라 할 수 있다.

지금의 우리가 바로 이러한 역사를 연구하고, 그 의미를 찾는 까닭은 과거를 통해서 '역사의 합법적성을 관철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그것이 오늘의 현실이나 본질과는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며, 더 나아가 보다 나은 미래를 세우기 위하여 이러한 합법적성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역사인식 속에서 우리에게서 5월은 어떤 의미를 전하는가 되짚어 보아야 함은 당연한 일무다.

해마다 5월이 오면 그날의 현장을 순례하고 그 의미를 가슴깊이 지니 이제 하나의 커다란 계승의 날로 자리 잡았다.

광주, 도청, 금남로, 망월동 그 한, 한의 모든 역사의 장을 눈으로 확인하지만 아직도 가슴에 남은 5월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 보고자 한다.

현 문민정부는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고 우리의 5월을 역사에 책임 전가하는 부도덕함을 보이고 있다. 한 역사를 사상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까닭에서 진정한 5월의 의미는 보다 더 크다 하겠다.

5월, 그 평범한 한의 5월은 우리에게 요구한다. 바로 오늘의 현실에 대해 과거 역사의 민중들은 그 현실에 어떻게 살았는가 말이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현실에 대한 역사적 합법적성을 관철시켜야 한다는 더 높은 당면 임무를 요구하는 것으로 우리는 바로 이러한 역사로부터 부여받은 임무를 실천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5월의 역사적 의미이다.

김민철
(인문대 교회사학과)

'반미의 날' 집회

미국의 남한내 무기배치·군사훈련규탄

5월이면 80년 5·18 광주 민주 항쟁을 비롯한 오월의 투쟁들을 생각해야 한다.

80년 광주의 5월은 민주와 열기로 뜨거웠고 신군부의 탄압으로 광주민중들의 합성은 높았다.

이러한 5월을 맞이하면서 5·18 광주민주항쟁의 정신을 계승하여 많은 집회들이 있었다. 특히 올해는 UR 쌀문제의 북한

해문제 등으로 때때로 이에 대한 집회도 많이 가졌다.

반미의 날 하루전인 21일에는 시립대에서 5·18 광주 민주항쟁 정신 계승 및 정전 행동 지지, 민족 자주 권수호를 위한 범청학련 결의대회가 있었다.

조국의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을 위하여 남·북·해외의 2백만 청년 학생들이 모여서 만든 범청학련에서 이러한 집회를 한다는 것은 집회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재 북한 핵문제로 대두되는 긴장고조와 미국의 정전 행동을 저지하는데 그리고 민족의 생존권이 걸린 싸움을 지켜내고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는데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집회에 며칠전 한총련이 이적단체로 낙인찍히면서 수백명이 떨어진 조국통일 위원회 위원장인 남총련 의장님이 나오는 것은 그곳에 참여한 2천여명의 학우들에게서 많은 박수를 받았다.

집회의 내용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한핵문제로 인한 긴장고조로 미국이 남한에 무기를 팔아먹고 T-S훈련같은 군사훈련을 재개하려는 것에 대해 규탄하고 민족의 생존권이 걸린 싸움의 수위를 감오하여 더욱더 경제적으로 우리를 계속 화시키려는 미국을 규탄하는 내용이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민족의 자주 민주 통일을 이루어 내자는 것이었다.

집회를 끝내고 유인물을 돌려주

면서 시립대에서 청량리역까지 거리선전전을 했다.

이렇게 '현재 우리민족이 처해있는 상황을 인식하고 하나씩 타개해 나가 결과에는 통일을 이루어 내자는 것이 5월정신을 계승하면서 생활하는 청년학생들이라 생각한 다.

박병남
(경상대 무역학과)

민중의 현장을 다녀와서

노동자 삶 경험 기회

나는 처음에 이곳에 가는것에 대해 선배에게 권유를 받았을때 매우 망설였다. 일이 힘들면 어쩌나, 혹시 다치지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앞섰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나의 평범하고 편했던 생활에 어떤 계기를 주지 않을까.

또한 말로만 들어왔던 노동자들의 삶에 대해 직접 느끼고 싶어서 많은 생각 끝에 한번 가보기로 마음 먹었다.

기회 하루전날 우리가 일하게 되어 있던 인쇄소에 들러보기 위해 인쇄소사무실에서 장소나 주의사항을 듣기위해 선배, 동기들과 함께 출발하였다.

도착해서 주의사항을 듣게 되

을때 혹시 일하시는 분들이 거친(?)말, 행동이 있을지도 모르니 이해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을 듣고 난 매우 긴장감에 휩싸였다. 하지만 막상 가보니 정반대였다.

나와 같이 일하신 분은 감심원씨였는데 인쇄노조 문화부장으로 계신다.

그분은 나와같이 일하는 하루동안 끝까지 내게 존재감을 써주며 내가 일이 힘들지 않을까 신경써 주셨다.

인쇄소에서 나의일은 사실 이체협담을 쓰는것조차 부끄러울 정도로 너무 편해서 다른곳에서 힘든 일할한 친구들에게 매우 미안하다는 말을 전해주고 싶다. 그분도 내가 정말로 공경일을 제대로 느끼지 못해 열어가는데 별로 없을것 같았다. 물론 제대로 느끼지는 못했지만 직접 일하고 노동자분과 이야기하면 선배들에게 노동자의 삶에 대해 추상적으로 느꼈던 것에 비해 많은 것을 알고 느꼈다는 것에 내 스스로 어느정도 만족한다. 또한 동아에 있는 모든 학우들이 말로만 이런경험을 많이해 보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단 하루였지만 나의 지금까지의 편안한 삶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고 많은 것을 가져다 준 경험이였다.

안 단
(공과대 전자공학과)

지나호 동대신문을 읽고

5·18 기획부족 아쉬워

지나호 (제1150호) 동대신문을 보면 우선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논술·화술·문화면의 불교 관련 기사가 신문을 거의 압도하였다. 하지만 그로인해 점점 퇴색되어지는 5·18광주항쟁의 의의를 살리지 못한 점이 못내 아쉬웠다.

또한 취재나수의 성격적 편 대 동제를 진단한 기사가 총학생회장 사퇴 기사를 누르고 당당 Top 을 장식하였는데 물론 대동제를 마친 후라 하더라도 제26대 총학생회장 사퇴건은 비단 서울 뿐만 아니라 광주권에도 커다란 파문을 일으킨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7면으로 밀려난건 이해할수 없는 일이다.

한편 동아로를 보면 요즘 유행하는 달달이 시리조를 인용하여 대동제의 모습을 꼬집어 놓았는데, 우선은 충격적이었다. 읽기에 도 훨씬 쉬웠고 내용도 충분히 파악되는 글이었으나 평가 빠진 듯한 느낌이 들었다. 동아로리합

은 읽는이로 하여금 무언가를 던져주면서 생각할 까리를 주는 현 장취재 칼럼이다.

이경미
(법정대 법학과 분사모니터)

'백상의 집' 관련기사 세밀한 취재 요구돼

지나호 (1150호) 동대신문에서는 대동제 평가와 총학생회 사퇴 경위에 대한 기사가 1·2·4·7면등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그러나 7면 외곽의 회전문대 중에서 '무죄'라는 백상의 집에 대한 기사는 짧고 가볍게 7) 다루었지만 위 두 사안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본다.

얼마전 과학관 앞에서는 백상의 위생상태를 학우들에게 묻고 서명운동을 벌인바 있다. 동대신문은 좀더 세밀한 취재와 기사작성으로 학우들의 여론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본다.

김일환
(문과대 국문과 분사 모니터)

조대 회포

隨處作主



(현대고승묵향 전시회 중에서)

서용성님: 35년 중앙불교전문학교 졸업, 동국대 선원장 (62~64) 조계종 제5대 종정, 대한불교총연합회 회장 (75) 불교 중앙문화원 총재 등 역임 현재 백양사 조실

'현대고승묵향' 전시회

- 감성주 컨스님 소장품 기증 기념 오는 27일까지 본교 박물관 2층 특별전시실

동/문/칼/럼

지금까지의 내 인생은 고통과 역경의 연속이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나의 서울 유학이 그러하였고 험난한 문학 수업 과정을 거친 소설가의 꿈이 그러하였고 서울 특별시 공립학교 교사가 되는 길이 또한 쉽지 않았다.

내가 순간순간 좌절감에 부딪칠 때마다 새 희망으로 캄캄한 해구(海口)에서 한 줄기의 빛으로 안구와 가슴을 투시해 오는 문구들이 있었다.

'하면 된다'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이런 어구들이 내 뇌리를 휘감아 오면 나는 두 주먹을 볼끈 쥐곤 했다.

그 당시 시대적·경제적 상황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동국의 문학과로 입문해 아르바이트로 간신히 대학을 졸업했다. 출세미담, 미

'하면된다'는 신념을 가져라

역경속에서 내게 준 교훈

동국으로 시험을 보았으나 성적은 안 나와 재수강, 재시험을 치르면서도 한 번도 절망하지 않았다. '절망'이란 낱말 그 자체가 나에게서 떠나 사치스런 용어였다.

신촌 문예에 무릇 7번 도전하여 7번 모두 낙선의 쓴 잔을 마셨다. 방문을 걸어 잠그고 한 달 동안 울다, 우는 것도 감정 낭비라고 규정 짓고 신촌 문예 당선 소설을 모조리 통독하고 그 문장을 번민히 분석 검토하고 다시 나의 작품을 감상, 음미, 수정하여 '현대문학'지의 추천을 받게 된다. 나는 극한 상황에 처할 때마다 나 자신에게 강하게 자문한다.

'너 죽음을 택하겠는가? 너 결심을 살현시켰겠는가? 변명은 하지마!'

(내가 왜 죽어? 죽음은 그 인생의 마지막 카드인데...) 나는 '죽느냐' '사는냐'하는 선택



의 기로에서 '하면 된다'라는 강한 신념과 긍정적 사고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그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는 자세로 삶을 살아왔다.

후배들이여-

항상 '하면 된다'라는 신념으로 자기 '이상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라.

오정아
(국문 70졸·작가)

목 먹골

축하합니다

사회학과 야구우승 축하합니다. - 동악의 일반학우 일동

무역학과 이상우군의 DUBS 퀴즈대잔치에서 대승을 축하. - 무역학과 집행부장 일동

전국 생활정보 대중정치 대학생연합의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21. 22일) - 제15대 사회학과 생활학생회

5월29일 금피누나 생일 축하해요. - 농경과 제민울림

창영 (띠지)가 생일 축하해 (왜 태어났니~) ♪♪♪. - 탈반 공연을 축하드립니다. - 명진관 선배가

D.Y.H의 자립단 회장 김성규 (기계 2), 부회장 김지영 (교육 2), 문화부장 김성현 (교육 2)의 귀환 날을 D.Y.H의 모든 회원들이 한마음으로 축하드립니다.

야구부가 4강에 오른 것 정말 축하드립니다. 동국의 주인공들로 우뚝 서 우승으로 달리시길 바랍니다.

사랑스런 친구들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지은, 숙경, 은영)아 생일축하해. - 92 신원자연학과 이쁜이

이기솔꿈 (선영)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 호우희

준보 (선 92)아 생일축하한다. 공부는 못해도 좋으니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너 속속이면 죽어. - 샤가 선배

수고하셨습니다

국교과 3학년 여러분! 즐거운 수학여행이 되기 위해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들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자랑스럽습니다. - 예쁜 수진이가

東佛人 여러분 재등행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 제성

이그들이 축제준비하느라 고생 많았다. but 앞으로 더 힘든 일이 많을테니 각오하고 있어라. - 선우부를 사랑하는 선배가

중앙노래패 아리랑 여러분!! 불정기공연 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커지는 탐사어 됩시다. - 유일한 랑 93 학우

동/악/광/장

알립니다

25일 바로 오늘은 달패가 불상 앞에서 마당공 공연을 3시에 합니다. 100년전 농민들의 외침을 지금 다시 우리들의 가슴에 새기며 너도나도 손잡고 불상앞으로 달려갑시다.

대 논산대건교의 품문 선배님을 찾습니다. 꼭 연락바랍니다. - 94 기계 신영호

늦었지만 작년 저를 가르쳐 주신 高三 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光州동신교 선생님들 25회 졸업생이 경제학과에 있으니 연락좀 해주세요. - 94 경제 김·M·L

to 은방골 日文 4年 선정언니 아직 살아있는지 궁금하네요 소식 주세요. - from 동악의 日文 4. 장미란

열심히 합시다

지교 회이팅 열심히 하세요. - 수교 1학년

통일노릇들 한총련 출범식

은방골

축하합니다.

27일요, 영명한 우리의 밥! 김현일의 생일 이거정요, 모두들 축하해 주세요. 현일이 진심으로 생일 축하한다. - 명희, 현주, 요선

동·대 최고의 멋쟁이 C·F·국 장철우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 친구들이

Seven-Glass의 Concert를 무사히 마친것을 축하하며. - 갈구

성주, 정민, 종은, 현신... 성인식을 치른, 모든 나의 친구를 축하합니다. - 사복은일

늦게나마 우리의 즐, 정훈이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 생화학 원성

운영 위원회 발족을 축하합니다. - HAM 국장

불교학과 2학년 최주연의 생일을 축하. - 無

5월은 Kusa 청림의 날, 모두들 축하해 주세요. - DUCCO

통소리 총무 이종마 생일 (31일) 축하한다. - 93 천재 Km

축하해 주세요. 29일은 불알 친구 재훈이의 귀환 날이에요. - 영상

알립니다.

싱그러운 5월의 30일 한문학과내 동아리소리창고의 제3회 정기공연이 있습니다. 함께 지켜봅시다. - 사

돌아오는 5월 31일은 제6회 '그날이 오면' 정기공연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그날이 오면'을 사랑하는 사

다가오는 6월 2일은 국사학과 노래패'하나'팀이 6번째로 패자를 잡는 날이에요. 많이 먹으시오소. 소감담로에. - 우리조직원

축제때 잃어버린 0152183116 을 찾아 주세요. 모토라라 브라보 플러스예요. 연락은 0124915116으로 해주세요. - 저

열심히 합시다.

조경학과 4학년 선배님을 축하하시느라 힘드시죠? 하지만 힘내세요. 후배들이 열심히 응원할게요. - 조경학과일동

동음 5월 31일 Concert날 우리 열심히해요. - 동음15기

P.A.S.S (평정연구회)! 매일 늦은 시간까지, 배움의등불을 환히 밝히고 있는 후배들에게 더욱더 열심히하라는 당부와 말과 아울러 건강에 유의하길 빈다. - 레임 덕 상태의 독재자

그리고...

Kang수미야 평정열리 나아서 같이 놀자. - ASC일동

나 아닌 우리의 친구가 우리 곁을 떠난지 1년이 되었습니다. 친구의 영혼이 항상 우리곁에 있음을 느끼며 또한 영원히 그 친구를 기억할 수 있기를... - R·A·C 13기 일동

'생활 학문 투쟁의 공동체'한총련의 출범은 1백년 한국학생운동의 또 하나의 결정체이자 미래조국 청년학생의 집단적 표상이다. 백만 청년학생의 투혼, 열광, 사랑이 살아숨쉬는 오늘, 한총련 2기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독재와 분단의 예측의 시대를 살아 온 우리 청년학생들에게는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역사가 있다. 화석 보다 더 오랜 시간을 우리민족의 우리민중의 가슴에 새겨온 새날을 향한 역사가 있다.

한국의 학생운동은 30년 군사독재의 고통에서 민주투쟁을 불사라왔으며, 50년 분단의 통탄에서 통일애의 열망을 키워왔다. 1백년을 이어진 예측의 도전 앞에서 우리는 독립과 자주의 지조를 지켜왔으며, 시대의 함께 민족의 새날을 개척해왔다. 그러했기에 한국에서 학생운동은 구국투혼의 표상이며 애국애족의 거봉이었다.

오늘 한총련은 변화와 개혁의 시대에 직면해 있다. 사회 곳곳에서 참신한 기풍이 피어나고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민중의 움직임은 시작되고 있다. 그러나 찬란한 햇살자리에 어둠은 신재하듯 번도는 지속되고 있고 독재의 도전은 엄중하다. 격변하는 주변정세로부터 민족의 시련은 계속되고 있다. 비근하게 우월의 기대(7)나 예상을 뛰어넘어 김영삼 정권의 한계와 본질은 폭로되고 있다.

오늘 한국의 청년학생은 바로 이 오늘의 역사적 현실을 올바르게 직시해야 한다. 오늘 의 시련과 도전을 넘으면 반드시 내일 조국은 열광하고 있다.

이 시점 한총련은 전대협을 무엇을 계승하고 혁신할 것인가? 비록 그 길에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전대협의 불꽃 같은 투혼, 아니 1백년 한국학생운동의 정령부터 고스란히 계승해야 한다. 한국의 학생운동은 어떠한 환경도 바로 이 투혼과 정령로 돌파했기 때문이다.

불행히 오늘 한총련이 출범하는 현실에

는 정권의 이적성 시비와 탄압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 학생운동의 선배로서 가지는 안타까움은 차치하고 이 시련과 고통을 한총련은, 백만학도의 힘과 지혜를 모아 극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바로 이 길 속에서 만이 한총련이 중단없이 계속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오늘 조국의 역사가 한총련에 부여한 책무

서 우리의 사상은 어디로 가야하는 것일까? 의연히 강력하게 요구되는 역사, 사회, 집단적의 배제된다면, 또한 전체적으로 통일되어 있지않은 개별주의, 개인주의, 자유주의는 인류진보의 사상에 반하는 것이다. 둘째는 투철한 역사관을 확립하길 바란다. 역사에는 격정적인 순탄한길, 순식간이건 장기적이건 정의와 진리가 결국은

도 중요하지만 긴 역사속에서 오늘의 시점을 바로 알고 역사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책무를 올바르게 자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일제 식민지하에서 3·1독립운동으로 우리민족의 힘이 분출되자 일제는 문화통치 유화통치를 시작했다. 그러한 정세하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편에서는 좌경관문주의에 의해 좌파주의와 분열의 길로 들어섰고 또 한편으로는 개량주의에 의해 민족자치주의와 친일부일의 길로 접어들었다. 바로 그 시점 민족의 운명을 좌우편향에 입각해 개척할 수 없음을 깨닫고 보다 많은 우리의 선배들은 조국의 해방과 독립을 위한 참으로 자주적이고 민족적인 진로의 개척을 위해 나섰다. 오늘 6월항쟁의 사회적 영향력이 소실되고 6월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 세대가 이완되어 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보다 강고하게 6월항쟁을 계속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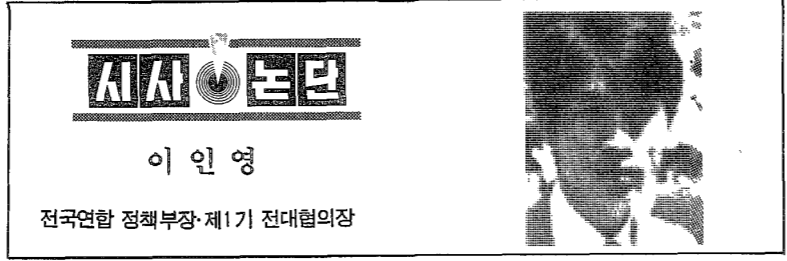
때밀고 나가려는, 자주 민주 통일을 완성 하려는 굳센 각오가 필요하다. 지금은 민족의 운명을 새롭게 결단하는 진정한 기로에 우리 모두 처해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한총련은 어떠한 길로 나아갈 것인가?

첫째는 견고한 조직관을 확립하길 바란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의 사상은 집단적인 것이며 개별적인 것이 아니다. 따라서 한총련은 백만청년학생이 따로따로 늘면서 발전할 조직이 아니라 하나로 똘똘 뭉쳐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우리는 이 가운데서 지난 시기를 부추렸던 보다 많은 청년학생의 이해와 요구를 생활속에서 정착시키고 우리의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넓히고 새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명확한 정세관을 확립하길 바란다. 우리가 기질 올바른 정세관은 1-2개월 혹은 1-2년의 정세를 올바르게 판독하는 것

을 슬기롭게 하는 왜곡된 사람의 질서와 사회제도 체제를 부정하고 평등과 해방이라는 인간의 새로운 질서의 수립이 역사의 긍정이고 발전방향임을 굳게 믿는다. 청년학생이 가진 그 순수함과 열정 그리고 시대를 앞서가는 진보적인 사상과 이념을 역사의 선봉대로서, 진보적 이념의 파종자로서 그리고 미래 조국의 탐험자로서의 자부심으로 단결없이 실천해 갈 때 비록 오늘 은 고풍스려울지라도 그 길은 역사의 정의와 진리가 함께 하는 영광의 길임을 굳게 확신하길 바란다.

셋째는 명확한 정세관을 확립하길 바란다. 우리가 기질 올바른 정세관은 1-2개월 혹은 1-2년의 정세를 올바르게 판독하는 것



백만 학도의 힘과 지혜로 새날을 열어가라

제2기 한총련이 가야할 방향

를 고스란히 실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조국과 민족앞에 수 많은 난관과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는 이 시점에, 이 엄중한 시각에 한총련이 새날을 앞장서서 일구어 나가길 기대하는 간절함 심정으로 다음의 몇 가지를 주문하고자 한다. 첫째는 집단주의적 사상관을 확립하길 바란다. 인류 진보의 사상은 끝없이 사회적 인 노동과 사적인 소유라는 갈등속에서 해방을 갈구해 왔다. 그리고 그것이 자율성에 기초한 연대적인 의식적인 주체적인 통일 이념의 존속을 위한 인간적 주체적인 인간으로 전진하는 것에 부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그러나 군사파쇼와 달리 일정한 자유와 권리가 존재하는 오늘의 현실속에

승리한다. 우리는 왜곡된 사람의 질서와 사회제도 체제를 부정하고 평등과 해방이라는 인간의 새로운 질서의 수립이 역사의 긍정이고 발전방향임을 굳게 믿는다. 청년학생이 가진 그 순수함과 열정 그리고 시대를 앞서가는 진보적인 사상과 이념을 역사의 선봉대로서, 진보적 이념의 파종자로서 그리고 미래 조국의 탐험자로서의 자부심으로 단결없이 실천해 갈 때 비록 오늘 은 고풍스려울지라도 그 길은 역사의 정의와 진리가 함께 하는 영광의 길임을 굳게 확신하길 바란다.

도서관을 진단한다

대학종합평가와 전산화

95년 대학종합평가를 앞두고 있는 본교 서울캠퍼스는 최근 자체평가를 진행하고 평가항목에 따른 취약부분 보완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대학종합평가를 앞둔 도서관

평가항목은 크게 시설, 공간등의 확보율과 관련된 정량평가와 교육 질적인 부분을 심의하는 정성평가로 나뉘는데 기초조성에서 발표 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정량평가항목을 중심으로 취약부분의 파악과 보완정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금까지 나온 자료를 근거로 살펴보면 취약부문중 도서관과 관련된 사항은 학생 1인당 도서수(현재: 47.6책 -1점)를 비롯해 대개 정량평가에 관한 사항이다. 이러한 정량평가항목 취약부분에 대해 학

교당국은 도서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점수확보가 용이한(즉 예 산으로 점수확보가 가능한)항목을 선별해 집중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갑자기 중요해진다?

도서관이 낙후할 수밖에 없는 근본이유중의 하나가 학교당국정책 및 인사의 인신부족이다. 도서관의 중요성이 이에 따른 투자우선순위 배정을 위한 필요성 각인이나 정책결정이 미흡하다. 그러나 대학 종합평가가 코 앞에 치고 도서관 평가항목에 따른 점수가 낮게 자체 평가되자 추가예산이나 보완책 마련이 하며 두서없는 정책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점때문에 그동안 대학종합평가에 부정적인 견해가 일부에서 나왔던 모양이다. 이같은 학교당국의 '급한 불부터 끄자'라는

연도	준비단계		소급입력 초기단계	시스템 도입 및 시험운영 단계	종합 전산화 시스템전환 단계					2002 이후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시서법	도서관 전산화위원회 구성/정책결정	도서관 전산화 실무소위원회 구성/연구조사 및 시스템 선정	D/B구축 신간판	시스템개발 시험가동 재해복합 및 평가	시스템전환(1인:대학전산부, 서울대) 2인:DOCS (IBM, 현재)							의정 및 시스템 보완 계획
목표 (D/B)	신간 입력	소급 입력										

식의 최근 도서관 정책을 바라보면 많은 이들이 우려를 하고 있다. 도서관이 준비하는 전산화 추진 10개년 계획이나 공간확보에 보다 깊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일이다. 전산화 추진계획 도서관이 장기적 발전계획으로 갖고 있는 몇가지는 기속한 중의 하나가 바로 전산화추진계획이다. (표참조)

(도서관 전산화 장기계획)

이러한 장기계획에는 학교당국의 관심과 예산지원이 우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학종합평가제와 맞물려 단기과제에만 매몰되는 안일 일이기도 하다. 박 수로 (본사 전 편집장) 다음호에서는 도서관에서 구상중인 전산화 구축계획을 살펴보면서 글을 맺겠습니다.

사설

합법적 출범식을 보장하라

— 한총련 탄압국면을 바라보며

조선대와 전남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이후는 27일부터 열린 제2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의장=김현준·부산대 총학생회 장 이하 한총련) 출범식을 앞둔 광주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분위기는 현지에서 들리는 이야기에 잘 담겨있는 듯 하다. 최근 광주를 다녀온 한 학생의 말을 빌리자면 "광주는 지금 제2의 5·18을 방불케 하고있다"라고 표현한다. 약간의 과장적인 말 이긴 하겠지만 지난해 제1기 한총련 출범식과는 그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말이다.

정부는 지난 19일 한총련의 헌법 이적성항이 뚜렷해졌다고 보고 한총련의 이적성에 대해 전면적인 수사에 들어간다고 발표하면서 한총련의 출범식(조선대 총학생회장)에 대해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잡혀가 나가고 있다.

이러한 정권의 대대적인 한총련 탄압은 김영삼 정권의 수세적 국면 타개책이라는 여론이 높다. 실제 현재 김정은은 UR협상실패, 물가불안, 삼부대 정치자금 수수 의혹, 김현철 사태 등으로 상당히 부담을 안고 있는 것만은 사실일 것이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한총련 출범식으로 백만학도의 힘이 결집된다면 정권으로서의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는 것이 객관적 분석일 것이다.

여기서 한가지 분명한 것은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출범식의 개최는 어느 한쪽의 노력으로만 가능한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한총련에서 아무리 합법적이고 평화적으로 출범식을 준비하고 치루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정부부처의 자금과 같은 태도로는 이의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다. 또 이에대한 책임은 분명 정권에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지난 21일 한총련에서 제안한 공개면담을 '이제 시기가 이르다'는 이유로 거부한 정부부처의 태도는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출범식을 방해하려는 의도를 극명하게 드러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아직도 많은 '주체사상'이 하면서 의도적으로 계획적인 공권력 투입상황을 조장하고 있는 정권의 행태는 과거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가고 있다. 이 부분에서 한총련의 이적성과 관련된 한총련에서는 출범식을 합법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북한 학생들과의 직접적인 통신 회합을 하지 않았고 밝힌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계속적인 이적성 수사, 공권력투입 등을 운운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아니 오히려 한총련 출범식을 방해하려는 정권의 공작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제 제2기 한총련 출범식의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개최는 김영삼정권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김정은은 한총련에 요구하는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출범식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정권이 앞장서서 폭력·불법행사를 조장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중국만화

김상남

동국대학원생 외산담배 대응방안 논문 현상 공모

- 응모자격**
동국대학교 재학생 및 대학원생(전공불문)
- 공모주제**
가. 외산(일본)담배 시장 잠식 대응방안 나. UR관련 외산담배 시장방어의 타당성 다. 20대 젊은 층의 외산담배 선호 문제점 및 해결방안 라. 국산담배 시장방어를 위한 방지방략 등
- 논문분량**
200자 원고지 50매(A4용지 8매) 내외
- 응모기간**
1994년 6월13일(월)~6월22일(수)
- 작품제출처**
①학생복지위원회 조직사무부(TEL:260-3681) ②동대신문사 편집국(TEL:260-3492)
- 심사**
가. 심사위원은 주제에 관련된 본교 교수님으로 위촉 나. 전체 응모작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예심 통과 논문을 대상으로 본심 실시
- 입상자 발표**
가. 1994년 7월 입상자에게 개별통지 나. 1994년 8월24일자 동대신문에 게재예정
- 시상**
*대상(1명):상장, 상패 및 상금 100만원 *우수상(1명):상장, 상패 및 상금 50만원 *장려상(2명):상장, 상패 및 상금 30만원 *입선(20명):상장, 상패 및 상금 10만원
- 기타**
*논문 제출자 전원에게는 사은품 증정 *응모시 신청서(소정양식) 및 재학증명서 제출 *응모논문은 주최자 소유

추천:동대신문사·제10대 학생복지위원회 후원:한국담배인삼공사 서울지역본부

공 고

'94학년도 계절학기 수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함

- 수업기간**
'94. 6.27(월)~7.18(월) 16일간
- 개설대상 교과목**
'94학년도 12학기 전 교과목(단, 실험 및 실습과목 제외)
- 강좌개설 기준인원**
10명 이상
- 수강자격 및 신청학점**
가. 수강자격:'94학년도 제1학기 재학생으로서 (1)조기졸업 희망자 (2)재수강자(해당과목 "F"(과락)성적인자) (3)서울캠퍼스와 경주캠퍼스간의 학점교류 희망자 (4)일반선택 희망자 나. 신청학점:16학점 이내 ※매 계절학기의 취득학점은 통산하여 6학점을 초과 할 수 없음
- 성적처리**
가. 계절학기 수업에서 취득한 성적은 졸업학점에만 포함 하며, 장학생선발 및 학사정계에와는 무관함 나. "F"(과락) 성적에 대하여는 학적부에 등재하지 않는다.
- 수강신청**
가. 수강신청기간:'94. 5.30(월)~6. 1(수) 3일간 나. 수강신청서 교부 및 접수 (1)서울캠퍼스:교무처 교무과(이부대학 학생은 이부 대학 교학과로 신청) (2)경주캠퍼스:경주캠퍼스 교무과
- 제출서류**
(1)계절학기수업 수강신청서(소정양식) 1매 (2)사진 1매(4cm×5cm) 최근 1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수강신청서에 부착
- 수강료**
개설대상 교과목:1학점당 53,000원
- 개설대상 교과목 확정발표:**'93. 6. 7(화)
- 수강신청 변경허가:**'93. 6.8(수)~6.10(금) 3일간
- 수업시간표 발표:**'93. 6.16(목) 예정

교무처장

'94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 공고

- 교육대상:**본교 예비군 전원
- 교육대상 제외자**
-94년도 전역자 -88년도 12월31일 이전에 전역한 사병및 장기하사이상 간부 -41세 이상의 간부(장교 및 하사관)
- 교육시간**
8시간(94년부터 해당 직장 예비군은 연간 8시간:1일)
- 교육일정(학과별)**

일자	학 과	장 소
6.21	불교, 영문, 한문, 국사, 국문	1대대정무원
(화)	철학, 중문, 일본, 고미술, 미술	동천시력장
6.22	생물, 화학, 전산통계, 사회봉사, 생화학, 조경, 수학교육	1대대정무원
(수)	전산, 산업안전, 의대, 법	동천시력장
6.23	경제, 국제경제	1대대정무원
(목)	경영, 경영(야)	동천시력장
6.24	회계, 관경, 정보산업	1대대정무원
(금)	원리, 법(야), 행정	동천시력장
6.25	(월)	
(월)	교직원, 대학원, 의료원	1대대정무원

- 교육장소:** 1대대 정무원/동천시력장 -1대대 정무원:경주군청 뒷편 50M지점 -동천 시력장:경주군청에서 산악도로 건너 1KM 지점
- 복장**
예비군복(전투복, 전투모, 전투화)
- 휴대품**
신분증, 주민등록증(본실자:학생증, 면허증, 동장 신분 확인서)
- 유의사항**
-08:00이후 훈련장 도착자 입소불가(위병소 통제) -복장 미준수자/신분증 미 휴대자 입소불가(단화 및 운동화 착용 절대 불가)

동국대학교경주캠퍼스예비군연대장

공 고

재학생 여러분의 폐결핵 진단을 위해 '94학년도 재학생 흉부 X-RAY 검진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재학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 시:**'94. 5.23~5.27
- 장 소:**본교 보건소
- 대상자:**재학생 전체 (신입생 제외)
- 비 용:**무료

다 음

보건소장

글쓰는 순서

1. 국가경쟁력 강화... 그 장미빛 환상
2. UR 협상의 세계사적 의의
3. 제3의 길이란 없다.

우려할만한 세계적 조류

인도에서는 지난 4월 GATT를 탈퇴하자 20여만명이 시위를 벌였다. 인도 국민 대다수가 이번 UR협상이 소수 매판 재발매에만 이익이라고 믿고 있다고 보도에서는 전했다. 시위가 계속될것임을 시사해주는 말이다. 인도 행정부가 이를 폭력적으로 탄압한것도 또한 알려진 사실이다. 왜 그랬을까?

인도는 인도경제의 '개혁과 개방'을 조건으로 IMF로부터 22억달러 '인도원조 컨소시엄'으로부터 67억달러를 받았다. 아르헨티나는 1백억달러의 부채를 탕감 받았다.

한때 내정불간섭, 민족자결, 세계평화와 군축등을 외교의 기본원칙으로 삼고 비동맹정책을 추진했던 멕시코에서도 이제 최첨단 개방화가 진행되고 있다. 바이호르 세계는 개방화라는 절대명제 앞에 하나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어떠한가? 개방을 앞서

실현한 나라는 제국주의국가의 강변대로 높은성장과 경쟁력강화가 이루어져 복지로 가고 있는가?

국제노동기구 보고서는 현재 전세계 노동인구 30%에 해당하는 8억2천만명이 실업 또는 불완전 고용 상태에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EU의 실업률이 10.9%이고 1천8백50만인을 감안하면 나머지 절대다수의 실업자는 후진·개도국에 분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세계적 개방은 이를 가속화할 것이다. 실제로 라틴아메리카등 개방을 앞서 실현한 나라에서의 높은 실업증가가 이를 말해준다. 이는 UR의 피해자가 전세계의 농민·노동자임을 보여준다. 과거에는 불경기일수록 공기업, 정부주도로 고용을 늘려 유효수요를 창출했지만 이제는 민영화와 감원, 노동강도 강화로 기업의 무한정 이윤추구만이 행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세계각국의 언론을 쥐고있고 문화적 침투를 끊임없이 감행해온 제국주의자본에 의해 언론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아니 오히려 장미빛 색깔하기를 서슴

◆전환기에 놓인 민족의 운명 진단과 민족민주운동의 방향

빈곤은 제 탓, 개인주의 성향..

국제화 개방화 논리로 치장

범국민적운동 통한 자주적민족경제수립, 이시대 최대과제

지 않고있다. 진보적지식인은 저항할 의 사도 비추지 않고있다.

오히려 선진국내부에서 UR결과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는 목소리는 들린다. 유엔 무역 개발회의 (UNCTAD)에서는, 서비 스관련 관세를 부과하는등의 몇가지 후 진·개도국 보호장치를 주장하였다. 물론 금방 문혀져 갖길 하지만...

이뿐만이 아니다. 세계는 바이호르 상 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예컨대 대중매체는 식민주의를 찬양하고 부활시킨 UR협상당국자들을 고통을 받고 선 개혁가요 혁명가로, 그것에 반대하는 이들에게 이미 '보수주의'라는 딱지를 붙여놓았다. 우파니 좌파니 하는 구분은 세 계적으로 의미가 없어지기 시작했고, 이 런 제국주의 이데올로기에 많은 지식인들이 혼란, 동조하고 있다. (한 예로 제3세계 에서는 국가공기업을 거대한 다국적기업 에 파는것이 '독점체제'로 묘사된다)이것 은 현시기 갑자기 발생한 문제가 아니다. 수십년간의 제국주의 자본·국가의 고도 세뇌정책에 의해 대중자제도 무감각해져 는 결과이다.

2차대전후 끊임없이 자행해온 제국주의 3세계 침공시마다 세계평화, 애국주의가 기승을 부렸고 이라크 폭격또한 비디오계 임의 형태로 제시되었다. 동유럽에서는 투기꾼, 파피안단원이 개혁가로 추앙받고 실업자들은 혁신적 기업가로 추앙받는 웃지 못할 일들이 현대사에서 지속되어 온 것이다.

빈곤은 제 탓, 개인 탓이고 성공은 개인 적노력에 의한 것이라고 강변하며 개인간 의 무한경쟁도 부추겨준다. 함께, 더불어 나눈다는 전통적이고 지극히 타당한 인 간애도,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에 대한 국 가적, 세계적 배려도 세계화, 국제화라는 가면에 의해 사라지고 분열, 불신, 개인주 의는 대중을 패배주의에 빠뜨리고 있다. 상업주의, 성 (sex), 보수주의만이 유일의 가치관처럼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념이 설자리를 잃었다해서 현 실의 모순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아무 리 세계는 하나라고 떠들어대도 추악한 제국주의의 행각이 없어지지 않았다. 분 명 세계는 변하고 있지만 진실은 결코 미 화될모도 없어지지 않는다. 새로운 사회 를 있는 그대로 분석하고 이에 대항하는 신념과 가치관이 생겨나야 한다. 과거의 것 중 잘못된 것은 계속하고 뒤떨어진것은 혁 신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인류공동체를 위 한 민족들의 투쟁은 이미 어디에서 시작 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한국사회, 혼란과 무기력의 현실

-삼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적 형태
얼마전 서울 불타다 발언이후 정부와 언론의 대북감정책이 활기를 띠고 있다. 연이어서 '남침, 북진시나리오'가 보도되고

전쟁만 일어나면 평양점령은 3일밖에 안 걸린다. 해블테먼 해보자라고 한다.

이러코 전쟁과 마찬가지로 전쟁과 전쟁 놀이를 혼돈하고 있는 것이다. 마치 기다 렸다는 듯, 미 무기상인들의 패트리엇 미사일, 아파치 헬기가 한반도로 팔려오 고 국민들도 흥미거리로 보고 있는 것이 다.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누가 다치는가? 미국의 무기상인이 다치는 가? 친미파관료, 정치인이 다치는가? 국 민만이 다칠뿐이다. 전쟁의 피해자는 역 사적으로 민중일뿐이다. 그런데 어찌 인 간의 문제는 실종되고 전쟁이라는 불신화 의 실종과 패배주의'이다. 아무리 제국 주의가 세계유일지배를 실현한다 해도 아무리 힘이 크더라도, 또 뾰족한 대안이 없어도 현실을 왜곡해서는 안된다. 내 가 대안이 없다해서 진실을 알리는 노력 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민주당 입장을 했거나, 추진중인 몇 몇 인사들의 '국제화'라는 현실의 조건 에 굴복해 재빨리 변신을 시도한것 이상 은 아님에 분명하다.

뿐만 아니다. 어찌 한반도에서 수백기 의 핵무기를 겨냥하고 언제든 발사준비를 한 상태로, 핵전쟁 연습을 하는 T.S는 자 구적 노력으로, 이에 불안을 느낀 이북의 핵개발 의사 (가)는 천인공노할 만행으로만 묘사되어야 하는가? 지극히 비합리적인 것 이 상식으로 통하고 있는 것이다.

절대로 돈을 (정치자금) 안 받았던 대 통령의 아들이 청와대 옆에 호화사우스를 마련하고 정치자금을 주물러도 언론은 대 통령과 별개의 문제로 취급한다. 금융실 명제중 경제개혁은 어디에서 실패하였는 지 국민들은 전혀 알고있지 못하다. 재벌 규제를 강화한다고 떠들면서 온갖 특혜 (금리자율화, 공기업 민영화등)를 다주 는 걸과 속이 다른 행동에 대해서도 국민 들은 알 권리지 못 갖고 있다.

-기승을 부리는 소아병적 민족주의

1980년대 노사분규이후 재벌및 노동집 약적 중소기업은 값싼 노동력을 노리고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한 동남아 등지로 진출하였다. 최근 수년간 언론으로 심심 하게 들려오듯 한국기업, 관리들의 천민 적행태는 현지에서 반한 감정을 유발시키고 있다. 현지정부관료들에게 뇌물을 주고, 특혜를 받고는 노동자들에게 극악 한 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것이다. '피라미 드식, 군대식 명령체계', '작업과정에서의 폭언, 협박, 폭행, 해고등'과 '성과급보상제 도, 비인간적인 상호감시방법'등, 국내에서 쓰던 방법을 그대로 쓰고 있다. 안에 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는 말을 어 김없이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내의 한인차별을 묵하면서, 소박한 꿈을 가지고 국내에 들어온 외국노동자는 짓밟고 착취하고, 정선대 만행을 규탄하 면서, 동남아에서 섹스관광을 즐기고, 이 는 분명히 잘못되었지만.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진출하자며 열을 올리는 재벌과 김영삼정권이 주장하는 민 족주의는 이런 민족주의다. 자국 국민의 생존권을 외국기업에 넘겨버리고도 태연 하고 웃는 나라 민족을 짓밟고 일어서

겠다는 천박한 민족주의요, 소아병적 민 족주의이다. 감자에 비굴하고, 약자에 횡 처덕으며 사는 것을 반길 국민은 한사람 도 없다.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것이다.

폐쇄되고 고립된 사회로 가지고 주장하 는 것은 결코 아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밝 혀야 하고 필수불가결의 문제에서 국민 적선택의 문제로 되돌리는 것이 기본적으 로 수행되어야 한다.

국제화, 개방화의 실상이 이렇지만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이에 굴복하고 동조 되고 있다. 특히 70~80년대 운동을 주도 했던 인사들의 적극적인 변화 (가) 두드 러진다. 적극적인 개방을 주장하거나 어 쥘수 없지 않으나 주장하는것까지 비록 편차는 다양하지만, 그 배경은 하나, '인간 의 실종과 패배주의'이다. 아무리 제국 주의가 세계유일지배를 실현한다 해도 아무리 힘이 크더라도, 또 뾰족한 대안이 없어도 현실을 왜곡해서는 안된다. 내 가 대안이 없다해서 진실을 알리는 노력 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민주당 입장을 했거나, 추진중인 몇 몇 인사들의 '국제화'라는 현실의 조건 에 굴복해 재빨리 변신을 시도한것 이상 은 아님에 분명하다.

제3의 길이란 없다

UR체제를 장기적 안목과 전망을 가진 세력의 국제화노력 (가)으로만 보지 않는다면, 조금만 냉정해도 현실을 바로 볼 수 있다. 거기에서 '자주'란 절대명제가 도출 된다.

자주란 무엇인가?
자주란 홀로서는 것이다. 남을 짓밟아 야는 제국주의적 행위를 통하지 않고서 도, 제국주의에 노예가 되질 자처하는 식 민적 근성도 버리는 것이다. 짓밟지도 짓 밟히지도 않겠다는 의지와 행동이 곧 자 주인 것이다. 현시기는 자주의 시대로 가

나 못가느냐의 전환기이다. 제국주의에 철저히 예측되고, 우리보다 못한 나라 등 처덕으며 사는 것을 반길 국민은 한사람 도 없다.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것이다.

폐쇄되고 고립된 사회로 가지고 주장하 는 것은 결코 아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밝 혀야 하고 필수불가결의 문제에서 국민 적선택의 문제로 되돌리는 것이 기본적으 로 수행되어야 한다.

어찌피 내면이후 개방이 시작되면 대중 의 생활과 의식도 전환기를 맞이할 것이 러진다. 적극적인 개방을 주장하거나 어 쥘수 없지 않으나 주장하는것까지 비록 편차는 다양하지만, 그 배경은 하나, '인간 의 실종과 패배주의'이다. 아무리 제국 주의가 세계유일지배를 실현한다 해도 아무리 힘이 크더라도, 또 뾰족한 대안이 없어도 현실을 왜곡해서는 안된다. 내 가 대안이 없다해서 진실을 알리는 노력 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민주당 입장을 했거나, 추진중인 몇 몇 인사들의 '국제화'라는 현실의 조건 에 굴복해 재빨리 변신을 시도한것 이상 은 아님에 분명하다.

어찌피 장기적 관점과 진정한 세계화의 전망보다는 제국주의의 모순을 전가하는 제국주의의 요구에서 출발한 UR협상이었 다. 장기적인 전망과 정책을 마련하는 것 은 피해 당사국이 될 수 밖에 없다.

진정으로 세계가 하나가 되는 길은 제 국주의의 침략적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피압박민중의 민족해방운동에 의해서만이 가능하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간단하다. 예측에 맞서는 자주적 민족경제수립이 라는 또하나의 과제를 내걸고 범국민적 운동으로 펼쳐나가는 것이다. 논쟁은 그 다음의 몫이다. 현실적 어려움도 그 다음 의 몫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이 시기를 사는 우리의 임무이다.

(사회부)

동약로

통일 방해꾼

"미국은 이북에 대 한 부당한 핵사찰 압 령과 전쟁책동을 중 지하고 조·미회담에 성실히 임하라."

지난 21일 시립대 에서는 '5.18광주 민 중항쟁계승 및 전쟁 책동저지 민족자주권 수호를 위한 범청학 련 결의대회'가 열렸 다. 시립대 해방광장 에 모인 범청학련 부 의장, 서울연합간사등과 더불어 학생 2천여명은 광주화살주변이자 한반도 전쟁을 책동하는 미국과 반통일 행각 이 명백한 김영삼정권에 대한 규탄의 소리를 높였다.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여 한반도 평화를 위협한다는 허위구실로 남한내 패트리엇 미사일 배치등 무 기증강을 피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고 조시키고 있다.

지난 18일자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은 북한 핵문제를 외교적 수단으로 해결하는데 실패할 경우 '긴 급대응계획회의'를 설치해 이미 본격적 인 협의에 들어갔다고 한다. 또한 경제 제재실시이후 상징되는 북한의 군사적 대응에 관해서는 깊숙한 협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도 교신문'을 인용하고 있다.

이제 핵위협을 주 범이 누구이고 그들 의 속셈이 무엇인가 라는 진상이 밝혀졌 다. 북한 핵문제는 그 누구도 아닌 우리 민족의 이익에 맞게 전개되어야 함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조선대의 한총련 출신식 준비상황보고에 이어 학생들은 한총련출범식 시수를 결의했고 양동훈 남총련 의장은 "미국은 한반도 정세를 긴장국면으로 몰고가려 한다"고 말하 며 "백만화도가 결의하여 한총련을 강 화하고 조국통일을 앞당기자"고 주장 했다.

미국에 대한 분노가 절정에 달하고 성조기 화형식이 치뤄지는 가운데 '들 어라 양키야'의 노래가 불타올랐다. "이제는 이땅을 가라!..... 들어라 양 키야, 이땅 분노의 함성을, 해방 통일 몸짓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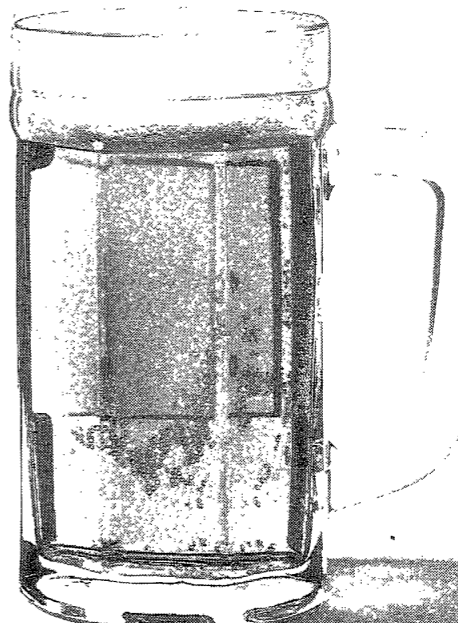
집회를 마치고 거리선전전을 나서는 이들의 마음은 잔뜩 흐린 하늘만큼이나 무거울 수밖에 없었다.

(김소영 기자)



◇대통령의 아들 청와대 옆 호화사우실, 금융실명제 경제개혁 실증, 재벌규제를 강화한다고 떠들면서 온갖 특혜를 다주는 걸과 속이 다른 행태, 그 까닭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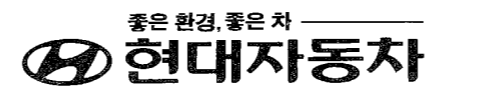
소주세대와 맥주세대간의 거리를 좁히자!



청년중역회의와 중역현장체제도를 통해 세대간의 조화를 이룩하는 「현대자동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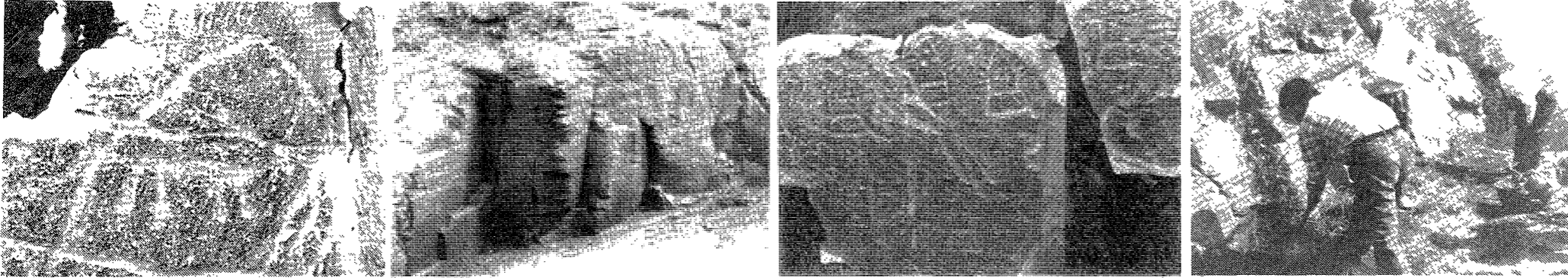
"하루에 한번씩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보자."
- 여기서 출발한 것이 바로 '청년중역회의 (일명 주니어보드)' 와 '중역현장체제도' 였습니다. 대리들이나 사원들이 직접 중역의 입장이 되어, 의견을 기탄없이 쏟아낼 수 있게 되었고, 이 언젠들은 빠짐없이 사장님에게 전달되어 현실 가능한 것들은 직접 반영되기도 하죠.
반대로 중역들은 20년전 사원의 자리로 되돌아가 생산현장에서 직접 일해보기도 하고, 각 부서들의 말단 자리에 앉아 그들의 고충을 직접 헤아려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것입니다.

앞선 사고와 열린 마음을 가지있게 받아들이는 회사, 「현대자동차」가 새로운 기업 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경주 고고미술사학과 유물조사단 금장대 선사시대 압각화 발견

고고미술사적 학문 위상정립...고대인의 무속적·주술적 행위 근거 밝혀져



◇좌측부터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압각화에서 볼수 없었던 산수를 배경으로 한 네발짐승의 모양, 금장대 압각화 정경, 발굴현장 모습이다.

지난 3월 20일 본교 고고미술사학과 유물조사단에 의해 발견된 금장대 선사시대 압각화가 관련학계에 비상한 관심을 모으며 정밀조사를 모두 마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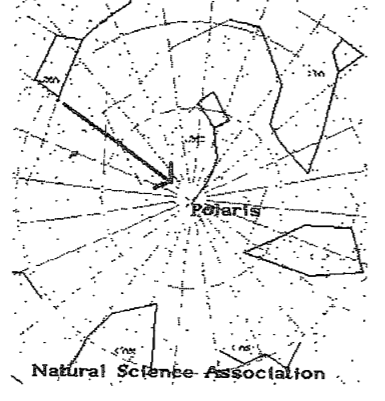
"지난 70년 이윤창(당시 경북대)교수의 고령 압각화 발견 이후 10여기에 불과하며 비했던 국내 압각화 연구에 일보전진을 가져온 큰 성과"라고 발굴의 의의를 밝히며 "뿐만 아니라 울산대공리 압각화에서 보여지던 사물의 사실적 표현양식이 그대로 보여지고 있어 학문적 측면에서 새로운 연구대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하고 있는 형상 △사람의 발자국 모양 △여성상식기 모양 등 사실적 그림이 함께 그려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압각화 조사와 동시에 청동기 유물로 추정되는 반월형 석기 및 무문토기편 등의 유물을 출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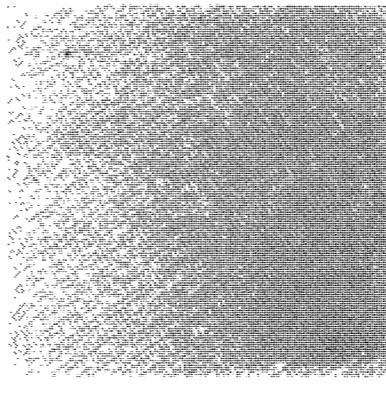
특징인 육지동물(호랑이, 사슴 등)과 바다 동물(고래 등)의 사실적 묘사와 청동기 후기에 초기 철기까지 연대를 잡고 있는 고령 철포리의 추상적 그림까지 금장대 압각화에서 다양하게 발견되고 있어 선사시대 압각화 제작연도추정에 중요한 단서로, 또 대공리 압각화 다음가는 오래된 압각화로 판단된다"고 금장대 압각화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인문과학대 학장 장흥식(고고미술사학과)교수는 "경주캠퍼스가 위치한 금장대 장 주변은 강가에 위치한 압각화본 구릉지대로 선사시대부터 선주민들의 주거지가 된 것으로 보이며 이번 압각화의 발견은 금장대가 선주민들의 주술적 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소견을 밝혔다.

지구는 자전과 공전을 함께 하고 있다. 이런 우리들이 하늘의 별을 보지 않고는 전혀 알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 태양이 동에서 서로 지고, 남쪽 하늘의 모든 별들이 동에서 서로 가는 운동을 하고 있음을 알때, 자연히 우리는 그 기준점을 찾게 되는 데, 그 기준이 되는 별을 우리는 북극성이라 말한다(엄밀히 말하면, 북극성 바로 옆에 기준점이 존재하므로 망원경 이용시 보정을 필요로 한다). 이 별은 밤하늘 관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아시다시피 모든 별들은 이 별을 기준으로 하여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기 때문이다(일주운동). 이 현상은 지구의 자전에 의해 일어 난다.



과학 에세이 북극성과 별의 일주운동



다. 마치 매우 큰 연처럼 길게 꼬리를 가지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북극점은 그곳에 있지 않다. 북극점이 "큰 곰자리"라면 그 아래의 별자리가 바로 "작은 곰자리"이다. 그리고 "작은 곰자리"의 꼬리 부분에 북극성이 있다. 북극점은 쉽게 찾을 수 있으므로 대개 별자리자들은 북두칠성을 보고 북극성을 찾기도 한다. 위의 그림과 같이 북두칠성을 찾은 다음 북두칠성의 꼬리가 가리키는 방향의 반대쪽으로 그리고 북두칠성을 이루고 있는 사각형의 한변의 크기만큼 화살표 방향으로 5번만 가면 북극성을 찾을 수 있다. 사실 "작은 곰자리"는 동양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방법을 이용할 수 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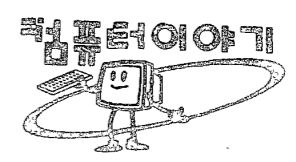
찾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동양에서 별을 관측하기 좋은 곳은 다름 아닌 대운동장이다. 그래도 다른 건물들에 의해 어느 정도 밝으므로 노출시간을 한시간 정도로 하면 필름이 타버려 별들을 구별할 수 없게 된다. 계산 상 반시간 정도라면 한시간에 15° 움직이므로, 약 75°씩 동쪽으로 그려진 별들의 길을 찍을 수 있게 된다. 만약 당신이 북극성을 제대로 찾았다면 당신은 자신이 촬영한 사진의 중심 부근에서 원의 중심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위의 그림은 매우 어두운 다른 장소에 가서 북극성을 중심으로 일주운동을 하는 별들을 고정 촬영한 것이다. 보통 아마추어 전체 사진 촬영은 이렇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인간의 동공 즉, 빛이 눈에 들어오는 구멍은 그 크기가 최소 3mm에서 최대 6mm 밖에 되지 않는다. 이걸 망원경이나 카메라의 구경에 비하면 매우 작은 값이다. 들어오는 빛의 양이 적어지면 그 만큼 어둡게 빛을 감지하지 못하게 된다. 사실이 이 유때문에 우리는 더욱 많은 별들을 감지

하기 위하여 망원경을 본다. 구경이 작은 현미경의 렌즈 아래에 전구나 거울로 빛을 쏘아주는 이유도 바로 다름 아닌 배울을 높일 때 좀 더 많은 빛을 통해, 더욱 선명한 상을 얻기 위함 이리라. 카메라가 망원경과 다른 점은 바로 상을 보존할 수 있다는 것인데, 사실 이전 그리 중요하지 않다. 더욱 중요한 건 카메라가 망원경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여 준다라는 사실이다. 망원경의 구경이 작아, 빛이 그리 많이 들어오지 못해 별들이 그리 잘 보이지 않게 되어도, 카메라가 있으면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뜨거운 난로에 손을 대는 경우를 보자. 빛도 하나의 에너지이므로 빛을 뜨거운 난로라고 가정하면 난로가 매우 뜨거울 때, 즉 빛이 매우 많을 때(구경이 커서)손을 살짝 대지만 하면 뜨거운 느낌을 느낄 수 있다(별들을 감지할 수 있다). 그러나 난로가 매우 뜨겁지 않아도 손을 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바로 오래 동안 난로에 손을 가까이 하고 있으면 그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뜨거운것을 유

연히 만지게 되면 빨리 손을 빼버리는 것이다. 손을 대는 것이 바로 별을 감지하는 것이라 하면 오래동안 난로를 만지고 있는 것은 바로 카메라가 더 많은 별빛을 감지하고 있음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카메라는 우리가 망원경을 통해서도 감지 못하는 별빛들을 감지해 준다.

잘 아시다시피 사진을 찍을 때, 대상물의 고정이 중요하다. 여기서 지구의 일주 운동에 의한 별의 운동때문에, 우리가 밤하늘의 별을 명확히 찍으려면 그 별을 따라가 주면서 촬영을 해야 한다. 망원경을 이용할때에는 매우 정밀하게 별을 추적해야 한다. 여기서 앞에서 우리가 찾은 북극성을 이용하게 되는데, 즉 북극점을 중심으로 원운동하는 망원경을 만들면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바로 "적도의식 망원경"의 원리이다. 망원경을 북극점에 맞추어 일주운동의 각속도와 같은 속도(15°/h)로 시계 반대방향으로 회전을 해주면 자연히 망원경은 항상 같은 별만을 따라가게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별을 어느 정도 명확히 촬영할 수 있게 된다. 성운들(별 주변의 가스들)은 대개 이런 방법으로 찾아낸 것이다. 유명한 것으로는 오리온 대성운이 있기도 하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각각의 중심되는 생각이 있듯이 별 받침대가 바라보는 별들의 움직임에도 그 기준이 있다. 우연히 카메라를 지금 가지고 있다면, 한번쯤은 밤하늘을 촬영해보기 바란다. 별이 잘 보이는 곳에서 북극성을 찾아 별의 움직임을 한번 느껴보고 싶지 않은가?...

정성욱 (자연과학연구회 천체분과)



인공 지능

컴퓨터가 지능을 갖고 있는가, 또는 컴퓨터가 생각할 수 있는가에 관한 질문은 매우 모호하기 때문에 대답을 구하기는 어렵다.

인간의 행위를 시뮬레이션하는 프로그램, 인간의 사고력과 흡사하게 작용하는 컴퓨터. 이러한 것들이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연구의 존재이유다. 이 분야의 연구성과는 아직 미흡한 정도이다. 때문에 사람이 하면 더 잘 할수 있는 일을 구태어 컴퓨터가 수행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지만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지능을 지닌 컴퓨터의 개발이 궁극적 목표이므로, 전문가들의 연구는 계속 진행중에 있다.

우리는 가전제품 중 많은 것들이 인공 지능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광고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대개 극히 일부의 역할 수행에 머무는 것이 고작이다.

인공지능 분야의 문제는 무척 다양하고 흥미롭다. 이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추리력, 판단력과 동일한 기능을 담당하는 '추론의 알고리즘'을 어떻게 고안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초창기의 연구자들은 게임놀이의 정리의 증명에 관한 연구로부터 출발했다.

인공지능 시스템은 사소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도 많은 지식을 포함하게 되며 사용하는 지식의 양이 늘어남에 따라 적절한 한지식을 액세스하기는 더욱 어렵게 된다.

인공지능 분야의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몇몇 지식처리 작업에는 진보가 있었고, 자연언어이해, 의학 진단, 시각이나 음성 에 대한 인지등과 같은 특수한 영역에서의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추론과 함께 중요시되는 이론이 '인식'에 관한 이론이다. 인식의 연구는 통계적 패턴 인식과 다양한 이미지 이해에 관한 시스템의 두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인식에 관한 작업은 디지털 시그널보다 아날로그 시그널이 관계되고 서로 긴밀하는 수많은 것들을 일시에 인식해야 하기 때문에 무척 어려운 과정중 하나다.

말하여지는 언어의 이해에 관한 문제, 또한 인식에 관한 문제이다. 쓰여진 언어에 관한 문제도 컴퓨터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어와 문법같은 언어 자체의 구분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모호한 문장에 관한 추론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연구자들의 막대한 선행 작업이 필요하다.

인공지능 분야중에서 전문가 시스템(expert system)이라는 분야가 있는데 이는 의학 진단과 같이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영역에 활용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컴퓨터에게 사고의 능력을 심어 주는 일, 생각하는 컴퓨터를 창조하고자 하는 일련의 작업이 결실을 맺는 날, 인류문명, 또는 한번의 진보를 이루게 된다.

지동철 (대성교육출판 전신원정실 컴퓨터학과 94졸)

신세대 캐주얼 스타일의 이탈리아 모드... 엑스게이트 Wools Mark Wool Mark... Cool Wool의 상쾌함... 젊음과 감각의 '엑스게이트' Cool Wool로 즐긴다. 패션간직과 고급품질의 Cool Wool 자켓과 슈트. (주)삼풍의 신세대표현 엑스게이트. 가보고 유원한 Cool Wool로 착용감의 상용성, Italian Style의 세련된 신세대 감각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신세대 표현정경 자켓/셔츠. X-GATE FORMEN. CAMBRIDGE MEMBERS (주)삼풍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461-15 2층/2차입점 대표전화: 586-0303

엑스게이트 매장

명동점	02-778-7645	삼동점	031-535-6061	동수원점	031-9041	대전점	042-254-6356	울산점	052-245-0033
신촌점	02-552-4596	건대점	02-323-9392	미아리점	046-9418	광주점	032-224-3223	대구점	053-551-8970
신정점	02-472-8069	신촌점	02-338-7574	북촌점	02-635-0088	부산점	051-955-6190	부산점	051-955-6190
영등포점	02-778-4171	영등포점	02-672-1791	충주점	031-228-2924	전주점	063-252-1125	전주점	063-252-1125
이도점	02-774-5689	이도점	02-683-8238	대구점	053-252-7725	군산점	054-445-2280	군산점	054-445-2280
대우점	02-511-6018	수원점	031-0274	부산점	051-245-5967	부산점	051-245-5967	부산점	051-245-5967
부안점	053-2835	부안점	051-1993	대전점	042-255-0367	대전점	042-255-0367	대전점	042-255-0367

본사주최

제32회 전국고교생

문학콩쿠르



입상자 명단

◇시부	김인영	이화여고 2	(창)
장원	최성모	경북고 3	(창)
우수1석	최연아	염광여고 3	(창)
우수2석	최우현	경북고 2	(술길)
우수3석	황주형	부산공고 3	(창)
가작1석	김창선	양천고 3	(창)
가작2석	김지영	호서고 2	(술길)
가작3석			

◇수필부	김태영	마포고 2	(서편제와 서태지)
장원	유현주	승의여고 2	(서편제와 서태지)
우수1석	박꽃님	안산원곡고 1	(서편제와 서태지)
우수2석	박병우	순천효천고 2	(서편제와 서태지)
가작1석	문인자	공주여고 3	(오월)
가작2석	김현진	동래여고 2	(오월)
가작3석			

◇소설부	정유경	성남서현고 3	(그림자)
우수1석	고은주	잠신고 3	(기차)
우수2석	고유미	대전성모여고 3	(그림자)
가작1석	박상미	부산사직여고 2	(그림자)
가작2석			

심사위원

- ◇시부 이병기(시인, 국어국문학과 교수, 한국시인협회회장)
- 신경림(동문시인, 전 민족문학 작가회의회장)
- 홍신선(동문시인, 수원대교수)
- ◇수필부 홍기삼(문학평론가, 국어국문학과교수, 동국문학인회장)
- 허천택(수필가, 영어영문학과교수)
- ◇소설부 한용환(소설가, 국어교육과 교수)
- 김용철(소설가, 본교 공보부장)

◇소설부 우수 1석 그림자

그토록 두려워했던 것은 빛 자체가 아니라

바로 빛이 만들어내는 또다른 검은세계, 자기의 그림자였다



성남서현고등학교 3학년 정유경

실눈을 뜨고 속눈썹 사이로 예리하게 스며드는 햇빛 한 줄기가 무척이나 부담스러운 오후였다.

특히 태운에게 있어서는 더할 나위없이 긴장되는 시간이었다. 태운은 조금전, 저녁에 만날 사람들을 위해 면도와 이발도 새로 하고 썩 관상은 웃도 다려 놓았다. 처음부터 태운이 자칭한 일기하는 한데, 막상 다가올 시간에 대해서는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알게 모르게 고개를 들고 일어나는 것이었다.

한달 전에 태운이 선택한 일은, 심리학 과인 그의 전공을 잘 살려서 어둠속에 갇혔다는 소녀 한 사람을 밝은 하늘 아래로 이끌어주는 것이었다. 처음에 과학 연구소 직원인 삼촌의 말을 듣고서 태운은, 그것은 자기밖에 할 사람이 없다고 무척 자신있다고 장담했다. 그 때는 마음 한 구석에 이런 의문을 품어본 적이 없었다. 도대체 어떻게 된 부모일까. 자신의 딸이 출생 직후부터 어둠 속에서 살아오도록 내버려둔 것인가에 대해서, 그 '어둠'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의미의 어두운 세계가 아니라 정말로 어두컴컴한 다락방을 의미했다.

나중에서야 알게 된 것이지만, 여울이라는 이름의 그 소녀는 태어난 후 곧바로 버려져서 고아원에 가게 되었다고 했다. 일곱 살 때 큰 아이들의 뒤편 장난으로 으시시한 다락방에 갇혀 일주일만에 구출된 후, 여울이는 밝음과 어둠의 교차로를 걸어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지내게 되었다는 것이다. 사실 의료 기관에도 몇 번 맡겨 보았지만 결국은 그 건물 안에서 가장 어두운 곳만을 찾아 돌아다녔다는 것이 지금까지 여울이의 행동에 관한 보고였는데, 여울이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람을 믿고 그 사람을 따라서 밝은 데로 나와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런 사정 얘기를 들은 태운은 무척 난감해졌지만, 한 번 뿌린 말에 대한 책임을 지어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그저 최선을 다하겠습니까라는 말 밖에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오늘은 드디어 밤의 공주, 여울이를 만나러 가는 날이다. 병원 안의 모든 사람들은 울레로 아홉 살이 된 여울이를

'밤의 공주'라고 불렀다. 그 장난의 정도는 점점 더 심해져서 어둠의 수호자, 도둑 고양이의 여왕 등 여울이에게 불일 별명은 늘어만 갔다. 태운은 적어도, 사람의 결점을 구실삼아 놀리지 않을 자신은 있었다. 그는 네티리를 맨 후 마지막 한 울의 머리카락마저 깨끗하게 정리하면서 생각했다.

'그러나 과연, 내가 그 애를 밝은 데로 이끌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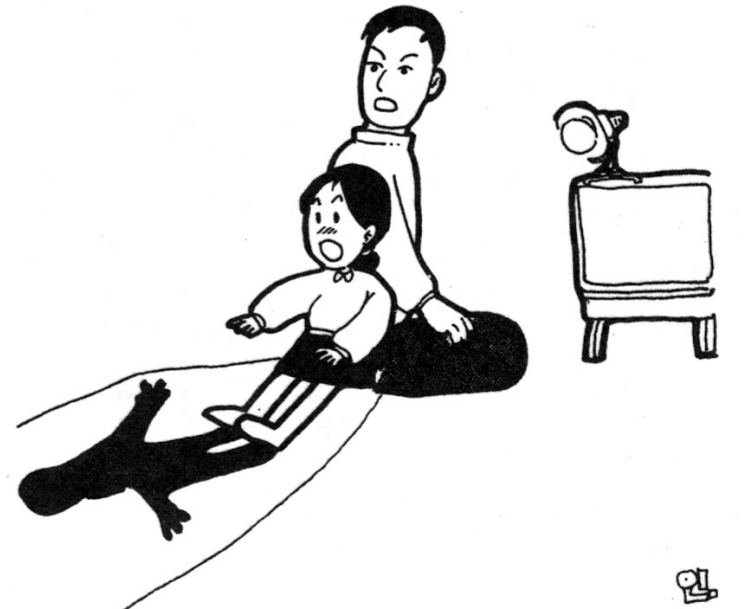
태운은 간호사의 안내를 받아 지하실로 내려가면서 여울이의 불안 성격에 대해 한 가지 두 가지 계속해서 듣게 되었다. 원래 여울이의 방은 18호실인데, 낮 동안은 항상 지하실 구석에서 숨어 지낸다고 했다. 정말이지 그 곳 고아원의 뒤편 너석들이 행패만 부리지 않았던들 저 예쁜 아이가 이 지경까지 이르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지하실에 이르는 육중한 철문이 탁탁치 않은 금속성의 소리를 내면서 열리는 순간, 태운은 무엇인가 검은 물체가 빠르게 구석으로 파해가는 모습을 보았다. 저 정도라면 도둑 고양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도 무리는 아니겠군, 그렇게 생각하며 태운은 지하실 안으로 한 발을 들여놓았다. 불은 절대로 켜진 안된다는 간호사의 충고를 기억하고 그는 조금씩 깊숙하게 들어가 지하실 내부를 살폈다. 눈이 어둠에 완전히 익숙해지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간호사가 마치 애완 동물을 부르듯이 부드럽게 여울이의 이름을 불렀다. 여울아, 어디 숨었니? 이리 온.....

"가만 있어요. 내가 숨은 데를 압니다." "역지로 끌어내려고 하면 더 양말을 부러요. 팔뚝이 물어뜯기지 않게 조심하세요." "그 때만 해도 태운은 여울이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했다. 그때문에 멋도 모르고 여울이가 숨어있는 곳으로 성큼성큼 발걸음을 옮겼다. 그러자 그에 대한 보복은 즉시 나타났다.

팩! 태운이 날렵하게 피하지 않았더라면 은 양복이 연탄재를 뒤집어 쓸 뻔한 순간이었다. 그는 발 아래 하얗게 피어오르는 젖가루를 보고 대충 어느 방향에 여울이가 주그리고 앉아 있는지를 짐작했다. 그는 여울이의 뒤로 살그머니 다가가 어깨를 움켜쥐기 이전에 우선 그 아이의 머리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백열 전구에 불을 밝혔다. 그 순간 태운이 처음으로 듣게 된 여울이의 비명 소리는 사람의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조차 없을 정도였다.

태운이 거처하는 아파트에 유리한 점이 있다면, 일단 낮 동안은 어두운 곳이 없다는 점이었다. 보통 아파트에서 가장 어두운 곳이라면 욕실 뿐인데, 태운이 사는 독신자 아파트는 그 욕실마저도 정남향 쪽으로 나 있어서 무척 밝았다. 아무런 힘도 못 쓰고 태운의 집으로 끌려온 첫날부터 여울이는 두려운 눈빛으로 조금이라도 그늘진 데를 찾으려고 애썼고, 종종 소파 밑이나 침대 밑에서 웅크린 채로 발견되곤



하였다. 태운이 침대 밑으로 손을 집어넣으면 그 손을 있는 힘껏 다해 깨물었고, 왜 도대체 어두운 곳을 좋아하느냐고 물어보면 입을 열지 않았다. 식사를 할 때도 침대 밑에서 해야만 했고, 화장실에 갈 때는 두 눈을 검은 안대로 가리고 태운의 도움을 받아서 가야 했다.

"여울아, 밤 먹자." "그러면 여울이는 침대 밑에서 입을 벌렸다.

"여울아, 화장실 가자." "그러면 여울이는 두 눈을 꼭 싸안고 기어 나왔다. 그런 것을 보면 여울이가 사람의 말을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니 듯했다. '이 애는 자기 자신의 공포에 너무 깊숙하게 빠져 있을 뿐이야.'

심리화적인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태운은 이같은 방법으로는 더 이상의 진전이 없음을 깨달았다. 그 동안 여울이에게 할 취고 뜯긴 자극만 해도 열 아홉 군데였다. 날마다 변함없는 생활로는 참차만 늘어갈 뿐 해결의 실마리는 점점더 멀어져 간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

그래서 어느날 밤, 그는 집 안의 모든 불을 꺼놓고 여울이를 안심시킨 후에 거실의 소파에 데려다 얹혀 놓았다. 여울이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어둠 속에서의 자유가 실감나지 않는 듯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태운을 바라보았다.

"이봐, 여울아, 왜 그런 눈으로 날 보는 거야? 나, 평소엔 너에게 먹은 것 주고 잠자리 주고 해줄 것 다해준 사람이야. 날 못 믿어?" 여울이는 잠시 고민하는 것처럼 보이더

니 신중하게 소파에 몸을 묻었다.

팩! 여울이는 몸을 움츠리며 무슨 스포트라이트라도 받은 것처럼 두 눈을 가렸다. 그러나 잠시 후 조금씩 시야를 넓혀보니, 그것은 전등불이 아니고 눈앞의 텔레비전이 켜진 것이었다. 태운은 여울이의 태도를 자세히 관찰했다. 여울이는 처음에 브라운관을 보면서 안심하는 듯 싶더니 이내 다시 몸을 움츠렸다. TV에서 나오는 빛도 어쨌든 여울이에게는 빛으로 느껴질 테니까 말이다.

그러다가 태운은 몇 분이 지난 후, 다시 여울이가 감싸안은 무릎에서 천천히 고개를 드는 것을 보았다. 태운은 일부러 관심을 갖지 않았지만, 여울이는 화해 없이 몸을 높이기 시작했다. 만화 그림이 빠르게 지나가고, 성우들의 푸린 목소리가 재잘거리면서 금방 다음 장면으로 이어졌다.

바로 그 때, 태운은 자기의 어깨에 와닿는 조그마한 여자아이의 숨결을 느꼈다. 태운은 미소를 지으면서 자기의 목을 만지는 여울이의 손을 잡았다. 손이 돌아보지 않아도 여울이는 화해 없이 그림에, 그림에서 나오는 미미한 빛에 사로잡혀 있을 것이었다.

여울이는 화면 앞으로 엉금엉금 기어갔다. 텔레비전의 마력에 빠진 여울이는 태운이 슬그머니 일어나서 거실의 작은 등불을 켜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태운은 천천히, 여울이가 보고 있는 텔레비전의 바로 옆에 등불을 세워놓았다. 처음에 여울이는 아무 것도 느끼지 못하

94학년도 후기 동국대

일반대학원

1. 모집과정 및 학과

- 가. 석사과정
 - 인문계: 불교학과, 선학과, 인도철학과,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독어독문학과, 일어일문학과, 사학과, 미술사학과, 철학과, 국문윤리학과, 연극영화학과, 교육학과, 한문학과, 미술학과
 - 사회계: 법학과, 정치학과, 행정학과, 경찰행정학과, 사회학과, 경제학과, 경영학과, 무역학과, 회계학과, 농업경제학과, 지리학과
 - 자연계: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통계학과, 농학과, 임학과, 응용생물학과, 조경학과, 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전기공학과, 토목공학과, 건축공학과, 화학공학과, 식품공학과, 산업공학과, 체육학과, 가정학과, 한의학과, 의학과
- 나. 박사과정
 - 인문계: 불교학과, 선학과, 인도철학과,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사학과, 미술사학과, 철학과, 국문윤리학과, 연극영화학과, 교육학과
 - 사회계: 법학과, 정치학과, 행정학과, 경찰행정학과, 사회학과, 경제학과, 경영학과, 무역학과, 회계학과, 농업경제학과, 지리학과
 - 자연계: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통계학과, 농학과, 임학과, 응용생물학과, 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전기공학과, 토목공학과, 건축공학과, 화학공학과, 식품공학과, 산업공학과, 가정학과, 한의학과, 의학과

전화 : 260-3093, 3094

불교대학원

1. 모집과정 및 전공

- 석사과정
 - ① 불교학과: 불교학, 선학
 - ② 불교사학과: 불교사, 예술사
 - ③ 불교사회학과: 사회복지학, 포교학
- 2. 원서교부 및 접수
 - 94년 5:30(월)부터 6:13(월)까지
 - (단 토·일 공휴일 제외)
 - 평일 09:00~17:00까지
- 3. 전형일시 및 장소
 - 94년 6월16일(목) 14:00 본 대학원
- 4. 전형방법
 - 필기시험(영어, 전공) 및 면접
- 5. 특전
 - 조계종 재적승려, 교원 및 공무원은 소정의 장학금 지급함

◇관리자 과정◇

- ① 지원자격: 조계종의 대덕 법계품수 승려, 각 종단의 간부, 각 실행단체의 간부 및 대표, 포교에 지대한 공헌이 있는자
- ② 원서교부 및 접수: 석사과정 동일
- ③ 전형일시 및 방법: 94년 6-17(금) 13:00, 서류전형 및 면접

전화 : 260-3097.3098

행정대학원

1. 모집과정 및 전공

- 석사과정, 연구과정
 - ① 행정학과: 일반행정, 공공정책, 지역개발, 관공행정, 언론홍보
 - ② 안보행정학과: 외교국방, 방위산업, 군사전략, 북한학
 - ③ 공인행정학과: 경찰행정, 사법행정, 소방행정, 교도행정, 사경비행정
 - ④ 복지행정학과: 사회복지
- 2. 원서교부 및 접수
 - 94년 6.1(수)~13(월) 본 대학원
 - (단 토요일·일요일은 휴무)
- 3. 전형일시 및 장소
 - 94년 6.18(토) 14:00 본 대학원
- 4. 전형방법
 - ① 석사과정: 전공(행정학)필기시험, 구술시험(영어) 및 면접
 - ② 연구과정: 서류전형, 면접
- 5. 특전
 - ① 공무원에게 졸업시까지 장학금 지급(수업료 30%)
 - ② 우등장학생, 총장장학금, 동문회장학금 등 다수 장학 특전이 있음
 - ③ 사회복지전문종업원은 1급 복지사자격을 취득

◇관리자 과정◇

- ① 지원자격: 정부 각 기관의 5급이상 공무원, 각군의 영관급이상 장교, 정부투자기관의 임원, 사기업체의 임원, 사회 지도급 인사 또는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 ② 원서교부 및 접수: 94년 6.1(수)~6.21(화) 본대학원
- ③ 전형일시 및 방법: 94년 6.25(토) 14:00 서류전형 및 면접

전화 : 260-3101.3102

는 듯하다가, 태운이 실수로 전등갓을 건드리자 비로소 그 불빛을 보게 되었다.

여울이의 눈빛은 금세 바뀌어버렸다.

그러나 그것은 여울이와 만났던 첫 날 태운이 보았던 것처럼 무시무시한 공포에 질려있는 눈은 아니었다.

여울이는 그 등불의 밝음이 주는 무서움의 크기를 조금은 참아내려고 하는 듯했다.

그러나 태운이 이제 막 기뻐하려던 찰나, 여울이는 자기기가 손과 무릎을 꿇고 있는 마루 바닥에 생긴 자기의 그림자를 내려다보게 되었다.

그 때 여울이에게 있어서 모든 기쁨과 호기심은 사라져 버렸고, 그 대신 감당할 수 없는 공포만이 남게 되었다.

자기의 그림자를 보고 혼비백산하여 구석으로 달러가는 여울이의 모습은 태운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예전과 다른 것은 비명 소리. 태운은 새우처럼 몸을 웅크리고 발발 떨고 있는 여울이에게로 다가가 손목을 잡았다.

비명 소리는 더욱 커져만 갔다. 태운은 여울이를 들쳐 안고 다시 전등갓 아래에 내려놓았다.

그러자 여울이는 그의 얼굴을 바로 차고는 다시 도망가려고 했다.

태운은 여울이의 발목을 잡고는 사정하듯이 말했다.

“왜 이래, 여울이! 이젠 너야! 너의 그림자만 알아!”

“싫어, 싫어! 그 사람, 무서워!”

“이건 그 사람이 아니라니까! 여울이 네가 보는 너의 다른 모습이야!”

태운이 하는 어떤 말도 여울이에게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여울이는 마지막 힘을 다해서 그를 밀어젖히고 소파 밑으로 기어들어가서 남작 옆드렸다.

다시 처음 상태로 되돌아 가버린 것이 태운에게는 가장 큰 실망이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체념한 듯이, 소파 밑의 여울이에게 선전 포고와도 같이 말했다.

“좋아 그럼, 난 계속 여기에 있을 테니까, 언제든지 네가 나오고 싶을 때 나오면 돼.”

태운은 소파에 걸게 놓고 팔을 괴었다.

그는 스스로가 심리화되고 자부했던 지난 시간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어둠 속에 침잠해버린 여울이에게 다녔 빛을 보여주기에 급급했을 뿐, 그 빛에 대처하여 생겨나는 그림자에 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여울이가 그동안 그토록 두려워 했던 것은 빛 자체가 아니었다.

바로 빛이 만들어내는 또다른 검은 세계, 자기의 그림자였다.

태운은 새삼스럽게 자기의 어린 시절이 생각나 피식 웃었다.

외갓집의 벽에서 벽에 비친 검은 사나이를 보고 기절해버렸던 자기의 코흘리개 시절이 떠오른 것이었다.

그것은 알고 보니 할아버지의 그림자였고 이후 몇 달 동안은 화장실 근처에도 가지 않으려 했던 자기의 어린 모습이 지금 생각해보아도 너무나 우스웠다.

하지만....., 하고 그는 다시 생각해 보았다.

나의 추억은 그랬다 치더라도, 여울이의 추억은 그렇게 우습거나 호탕할 수 있었을까?

태운은 여울이가 일곱 살 때 겪었던 경험이 만일 자기의 것이었다면 어땠을까 하고 거듭 마음속으로 말해 보았다.

“미안하구나, 여울이. 나는 네가 아니고 너 역시 내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너의 아픈 데를 치료해줄 수가 없구나. 미안하다.”

태운은 날이 밝는 대로 여울이에게 안대를 가지고 병원으로 다시 데려가야겠다고 생각했다.

병원 사람들도 예전에 짐들거나 희망이 보이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시 데리고 와도 좋다고 했으므로, 별다른 책망은 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들은 태운이 막 병원을 나서려 할 때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하느님이 아니라 박태운이라는 한 사람이에요. 당신은 그저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태운은 힘들거나 귀찮아서 여울이를 돌려보내려는 것이 아니었다.

빛과 그림자의 상식적인 상관 관계를 이해해 주지 못했던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하였다.

“다시 그 날로 돌아가서 여울이를 이해해보고 싶다. 나의 할아버지의 그 큰 그림자를 겁을 먹고 떨었던 어린시절의 심정이 되고 싶다.”

지금 당장 그렇게 하기는 힘들지 몰라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여울이의 심정을 이해하게 될 거라고 태운은 스스로에게 다짐을 주었다.

그리고 그런 날이 오면 여울이를 다시 한번 말아 보리라고 그는 생각했다.

“어둠 속에 갇힌 여울이에게 아무래도 가장 두려웠던 것은 작은 창문에 둘러서서 깔깔거리는 사내 녀석들의 그림자였는지, 내가 왜 그걸 몰랐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태운은 눈꺼풀에 밀려오는 졸음의 무게를 주체하지 못하고 스스로 잠들어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 태운은 이십 오년 세월을 살아오면서 일찍이 본 적이 없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다.

여울이는 그의 배 위에 머리를 얹고 앉은 채로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다.

마치 자기의 모든 것을 태운에게 의탁한 듯이, 꾸밈없는 편한 모습으로 잠을 자고 있던 것이었다.

“어....., 여울이?”

여울이는 살며시 눈을 뜨다가 주위가 대낮같이 환한 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후다닥 소파 밑으로 들어가서 두 눈을 가리고 말았다.

아마도 잠결에 밖으로 나왔다가 주위의 어둠에 안심이 되어 그대로 태운의 곁에서 잠들어버렸던 모양이었다.

태운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에 여울이가 스스로 나왔다는 사실 때문만이 아니라, 자기를 믿어주고 있는 듯한 여울이의 태도가 무척 고마워서 사로잡혀 천천히 소파 옆에 주그리고 앉았다.

“너는 빛을 보자마자 네 그림자가 생길까 두려워 다시 들어가 버렸다. 그러나 이제는 널 포기하지 않을 거야.”

곧게 걸심한 태운은 소파 밑으로 자기의 손을 집어넣었다.

“여울이....., 이제 나와도 돼. 옛날에 보았던 그런 무서운 그림자같은 거...”

“이제는 잊어버려도 돼. 왜냐고? 이젠 내가 너의 새로운 그림자가 되어 줄거니까. 그럼 내 손을 잡아....., 그리고 나오는 거야. 응?”

그리고도 태운은 손을 집어넣은 채로 한참을 기다렸다.

얼마나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 지났을까. 그는 마침내 자기의 손을 잡는 따뜻한 감촉을 느꼈다.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어서 그는 소파 밑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여울이의 눈과 마주친 순간, 그는 그 작은 손을 더욱 힘주어 잡았다.

주춤거리는 여울이의 몸짓이 새로운 세상을 향해 이제 막 나오려고 했다.

여울이는 마침내 자기의 팔이, 다리가, 그리고 얼굴이 지금껏 본 적이 없는 세상을 바라보며 나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 세상에 더해진 또 하나의 신비로운 모습- 자기 자신의 그림자를 보고 있었다.

◆소설부 우수 2석 기차

“조마 시끄러우면 어떤가요, 동리가 발전하면 어무이도 좋으실끼라예”

(1)

어머니는 드디어 눈을 감으셨다. 당신의 생을 앳은 눈꺼풀을 덮는 것으로 마감하셨다. 나는 어머니의 식어가는 몸을 두고 앉아 눈물을 떨궜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멀리서 기차소리가 들려 온다.

(2)

“어무이 이리 좀 와 보시오” 형이 갑자기 범석을 띤다. “어무이에 이것 좀 보시오” 어머니와 나는 형의 소란에 밖으로 나갔다. 형은 새로 개통한 기차역을 가리킨다. “우리 동리에도 드디어 기차가 들어올까 봐요. 이제야 된기라예. 우리 동리도 금세로 발전을 할끼라예.”

형은 지나치게 기뻐하고 좋아했다. 나는 형이 가리키는 기차역을 보며 크고 길다는 기차를 생각했다. “기차가 들어오면 우리 동리도 시끄럽게 꾸마.” 어머니 지나가는 한마디로 기차이야기를 하셨다. “조마 시끄러우면 어떤가요. 동리가 발전을 하면 어무이도 좋으실끼라예.”

나는 형이 그처럼 바라고 바라던 기차가 동네를 얼마나 발전시킬까 생각했다. 그리고 기차를 너무 좋아하는 우리형은 동네발전을 왜 저리 바랄까도 생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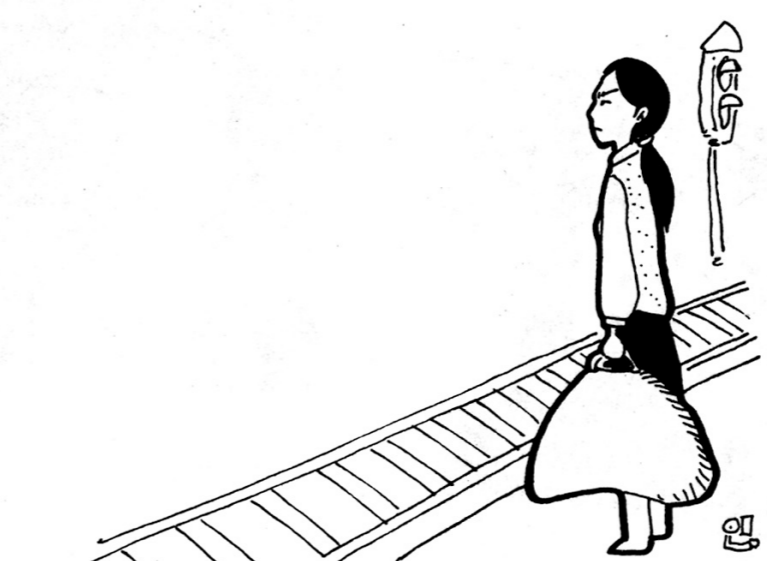
(3)

“백양~” 나는 처음 들어 본 큰 소리에 놀라 잠을 깨었다. 잠자리를 털고 일어나 어머니를 찾았으나 어머니도 형도 방에 없었다. 방문을 열어 찾았다. 기차역에서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사람들이 뜰로 시커먼 기차가 보였다. 나는 담뱃질을 쳐서 사람들 뜰로 다가갔다. 기차는 아까같은 큰소리를 내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저마다 기차에 대해 한마디씩 했다.

(4)

“어무이 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형은 어머니 앞에서 빙빙 돌며 머뭇거렸다. “뭐요 말해보시라. 아가 와 이리 비스듬하고 와 하기 힘든 말이야.” “아이라예. 지 다름이 아니라예.” 형은 자꾸만 말꼬리를 잡아 늘였다. 나는 눈을 깜빡이며 무엇을 그리 힘든 말때문에 형이 저럴까 생각했다. “지에 지 대도시로 대학공부하러 가겠습니더.” 잠시 정적이 흘렀다. 형과 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있고 나는 이런 침묵속에서 침만 삼키고 있었다.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내 침 헛기는 소리는 유난히 컸다.

“내도.....” 어머니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내가 와 안 그리고 싶잖나 내도 너를 큰 데로 보내 공부시키고 싶다. 하지만 너도 알다시피 저 늙아도-”



이 때 어머니는 슬픈 눈으로 나를 바라다 보았다. -내년이면 학교(학교)에 가야 되는기고 아무것도 없는 우리집 형편에 대해서 대학공부까지 여 시키노-

“어무이 반대할 줄 알고 한 소리라예 어무이가 반대하시는 기 때문에이러면 걱정할끼시도 됩니더.” 형의 말투는 자신만만했다. “그런 또 무슨 소리고 돈 걱정을 말라카이네 데 공부하든 없이 되나.” 어머니는 한숨쉬던 형은 대답을 했다. “사실은 예 작년부터 생각을 한기데, 저혼자도 아이고 옆집 삼도랑 같이 작정한 겁니더. 저희를 월남을 한 1년만 땡겨와서 돈 벌고 그 돈갖고 공부할끼니더.”

“어머니는 냇이 나간 표정이었다. 나는 월남이라는 소리에 깜짝 놀랐다. 월남이라하면 지금 전쟁이 일어난 곳이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죽이는 그 곳에 가겠다니, 나는 형이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보였다. “니 그걸 말이라꼬 하나. 월남을 가 그 사자에 나가 가. 니 지금 제정신이냐. 공부하자고 전쟁에 나가 안된다. 월남에 안된다. 내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나는 못간다.”

“야 지도 거기 전쟁터인줄은 압니다. 하지만도 거기 간다고 다 죽는것도 아이고 어무이 보내주시노. 지는 어무이가 가지 말라캐도 같습니더. 벌써 신청도 해 봤습니더.” “야야 안된다. 신청이야 말소하리라. 여서 참한 색사람 혼래하고 어 어미랑 살제. 니 대학공부한다고 다 출세하는 거 아니란 거는 알제. 지발(제발) 내 이렇게 벌꾸마. 가지 말고 내강(나랑) 살자.”

형은 고개를 돌렸다. 형의 결심은 꺾일 것 같지 않았다.

형이 떠나는 날이었다. 삼도형네 식구들도 우리 어머니마냥 많이 들은 눈치였다. 형은 어머니의 고집을 꺾었고 어머니의 눈에 흙이 들어가지 않고도 월남을 갈 수가 있었다. 기차가 출발신호를 울렸다. 두 형들은 나란히 기차에 올랐다. 동리 발전에 좋단 기차를 타고 형은 우리 곁을 떠나갔다. 전쟁이 한창인 월남으로.....

(5)

어머니 그 자리에서 곧바로 쓰러지셨다. 삼도형의 하나 뿐인 손에는 ‘전사통지서’가 들려 있었다. 나는 믿을 수가 없었다. 형이 죽다니, 동리발전시키는 기차를 타고 가서, 종이 쪽지가 피어 돌아오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어머니는 깨어나 자마자 통곡을 하였고 삼도형은 팔뚝이는 왼쪽 소매를 여미며 어머니를 위로 했다.

(6)

어머니는 매일같이 형을 기다리셨다. 곱던 어머니는 실성한 사람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나는 형을 기다리러 기차역에 나가있는 어머니를 찾으러 다니는 것이 일과처럼 되어 버렸다. 그렇게 세월은 계속 흘렀다. 내가 어머니를 찾을 수 없는 날이 이따금씩 생겼다. 어머니는 그렇게 밤을 새실 때도 있었다. 밖으로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사람들은 나를 부르러 왔다. 기차 철도에 어머니가 처참하게 짓이겨진 채 있었다. 나는 아무 생각도 나질 않았다. 사람들이 어머니를 집으로 옮겼다.

(7)

어머니가 그렇게 가신 후 나는 고향을 떠났었다. 형을 실어가고 어머니를 짓이기고 간 기차를 타고 몇 년을 그렇게 타지로 유랑을 했다.

이제 이렇게 고향에 왔다. 몇년만에 온 고향은 많이 변해있었고 기차역도 더 커져있었다.

형의 말대로 우리 동리는 발전을 했다. 못 알아볼 만큼 높은 건물도 생겼다. 그러나 그 발전한 동네 어디에도 우리 식구들의 것은 없었다.

멀리서 기차가 달려 온다.

이제 나를 완전히 고향에서 데리고 나갈 기차가.....

잠신고등학교 3학년 고은주

〈소설 심사평〉 주제, 구성, 문장 고루 갖춘 작품 드물어

흔히 소설을 현실의 반영이나 체험의 형상화 하는 말로 요약하지만 소설이 현실이나 체험을 지나치게 의식하여 실제이건 꾸민 것이든 어떤 이야기이건 치중할 때 소설은 지루하고 따분한 뒷뒤리에 빠지기가 쉽다. 이번엔 소설을 써 낸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야기를, 그것도 거의 실감이 안 가는 이야기를 억지로 만들기 위해 급급한 느낌이 들어 선선에서 기원 학생이 많기 때문에 하는 소리다.

그렇다고 호탕한 주제나 긴밀한 구성, 그리고 탄력있는 문장을 고루 갖춘 작품을 짧은 시간 안에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대체로 문장이 원만하면 주제나 구성이 엉성하고 주제가 심각하면 문장이 날린 작품이 많았다.

따라서 장원이 될만한 작품은 그 수준으로 보아 찾지를 못했고 정유영의 (그림자)를 이어가는 다소 비현실적이거나 그 문장이 간결하고 상상력이 풍부한 점을 높이 사서 우수 1등으로, 고은주의 (기차)를 그 주제의 비극성(기차)을 타고 가서 형은 전사했고, 기차길에서 어머니는 자살한 내용)으로 보아 우수 2등으로 뽑는데 두 심사위원은 완전 합의했다.

그 밖에 고유미의 (그림자)는 이야기를 끌고가는 힘이 있으나 내용이 떠있는 흐름으로, 박상미의 (그림자)는 전쟁의 그림자(영웅)를 할아버지와 손자의 혈연을 통해서 다루려 했으나 너무 큰 소재를 너무 상투적으로 다룬 점 때문에 가작으로 뽑히는데 그쳤다. 평소소 소설이 될만한 ‘꺼리’를 염두에 두었다가 좋은문장으로 표현하는 연습(습작)을 거듭해 주기 바란다.

(한용환·김용철)

학교 각대학원 학생모집

Table with 5 columns: 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 정보산업대학원, 산업기술대학원, 지역개발대학원. Each column lists admission details including exam dates, times, and contact information.

◆북한의 불교와 남북교류 - 두번째

조국통일기념법회로 남북불교교류 필요성 확인
북한, 총체적 교리 담은 대장경 간행
세미나 개최 통해 연구실적 교환해야
“불교계, 교류 많아질 때 위해 준비해야 할 터”

북한은 지난80년대 말 이후 적어도 종교분야에 관한 뚜렷한 정책 변화를 보여왔다. 종교시설의 확대와 불교교류에 대한 적극성, 그리고 의형적으로 나타나는 종교에 대한 인식변화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

89년 이후 정통사, 안국사, 안화사 등의 사찰복구와 칠골교회 신설 등은 물론 기독교, 천주교 등의 종교단체에서 접촉과 교류를 주장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한국기독교협의회(KNCC)와 북한기독교연합이 지난88년 스위스에서 개최된 2차 글라몬대회에 함께 참석한 후 앞으로 종교교류를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합의했으며, 지난해 10월에는 남북한 천도교 대표단이 올해 동학혁명 백주년 기념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북한은 특히 지난해 9월 단군릉 발굴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면서 대종교의 부활을 추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지난해에 편찬한 '조선말대사전'과 같은해 4월에 개정한 사회주의 헌법에도 종교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조선말대사전'에는 종교를 초자연적이고 초인간적인 존재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앙을 설교하는 교리에 기초하는 세계관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에 편찬된 '현대조선말사전'의 종교정의, 즉 저승에서 행복한 생활을 꿈꾸는 것을 설교하는 반동적인 세계관이나 조직이라고 규정된 것과 비교하면 큰 변화다.

또 지난해에 개정된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에는 신앙의 자유를 적법 제68조는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된다. 이는 구체적인 표현을 삽입하고 다만 "종교를 의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이용할 수 없다"라는 단서를 달고 있다. 이는 이전의 헌법에서 규정된 "공민은 반종교선전의 자유를 가진다"라는 내용과 큰 차이를 보여 주는 것이다.

불교에 대해서도 81년 '현대조선말사전'에는 반종교적이며 노예적인 굴종사상과 무저항주의를 설교한다는 극히 부정적인 설명과, 인민대중의 투쟁의식을 마비시키고 문화와 과학발달에도 해독을 끼친다고 비판했다.

관했으나, 92년 '조선말대사전'에는 이같은 표현을 모두 삭제했다. 그 대신에 동방에 퍼져있는 세계 3대 종교의 하나로 설명하고 삼법인과 사성제 연기설 공동의 중심사상과 기원을 상세히 서술했다. 이뿐만 아니라 힌두교와 브라만교, 중국의 도교 등을 추가하고 알다신 코란경 마호메트교 등에 대해서도 사실중심으로 정확하고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91년10월 미국로스앤젤레스 관음사에서 남북한 해외불교지도자들이 중심이 되고 조국통일기념법회를 개최했다.

이 법회에는 북한 불교도연맹 박태호위원장을 비롯한 총화두 비상연락처를 비롯한 북한대표들과 당시 조계종 서의현총무원장을 비롯한 승려주 전운덕 박혜륜스님등 우리나라 각 종단 대표단이 참석해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 합동법회는 해방후 46년만에 이루어진 남북불교의 공식적인 첫 대회이며, 이를 통해 남북불교교류의 필요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그러나 공식적인 남북불교교류는 이 한번의 만남으로 끝나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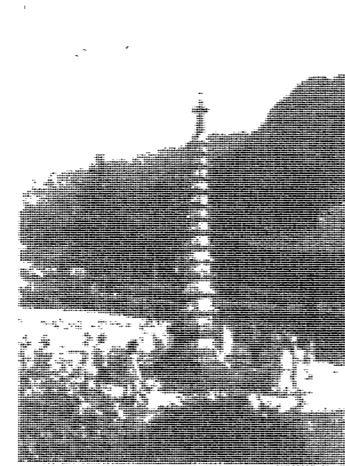
당시 남한측은 불교를 통한 민족문화의 교류와 상호신뢰의 회복, 민족공동체성의 확립 등에 중점을 두고 불교교리를 설명하고자 한데 반해 북한은 남한내의 핵무기 철수 보안법과 반공법철폐 남북인사석방등 정치적인 선결조건을 내세우며 교류를 제의함으로써 서로간의 입장차이를 확인한 셈이 됐다.

이때를 전후해서 당시 관음사 주지로 있던 법타스님이 세차례, 하와이 대원사 주자인 대원스님이 88년 북한을 방문하고 북한 불교 관계자들과 접촉한 것이 불교교류시세의 대체적인 개요다.

특히 지난해 9월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공북이불교지도자 평화화회의에 북한 불교대표를 초청한 이후에는 2년이 가까이 지도자 서로간에 교류를 제의한 일조차 없는 실정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난해 북한사회과학원 산하 민족고전연구소가 발간한 '팔만대장경해제' (전15권)이 국내 출판사에 의해 수입될 예정으로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팔만대장경해제본은 당초 지난해 2월중에 1차로 2천권이 들어올 예정이었으나 이 책의 수입을 추진한 여강출판사의 뒤늦게 협세한 일월



◇평안북도 함산군에 위치한 '모향산 보현사' 13층 석탑

서각의 경정으로 국내수입이 다소 늦어지고 있다.

대장경이란 경·율·론등 불교관계 서적을 모은 총칭을 말한다. 고려고종 23년(1236)부터 고종 38년까지 16년간에 걸쳐 완성된 고려대장경은 경의 종류가 1천5백37종, 권수가 6천7백83권, 목판수가 8만이 넘는 세계 최고의 가치를 가진 대장경으로, 목판의 수를 가리켜 팔만대장경이라고 부른다.

북한이 발간한 팔만대장경해제는 바로 이 고려대장경의 영인본을 번역한 것이다. 팔만대장경해제는 1권에서 6권까지 대승경전을, 7권에서 11권까지는 소승경전을 그리고 12권에서 15권까지는 불보살경등 기타 경전을 번역 수록하고 있다.

이 해제는 팔만대장경의 제1권 대방아에서부터 마지막 화엄경 탐현기까지 1천5백37권의 방대한 경전을 소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해제의 '일러두기'에는 팔만대장경의 순서에 따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불교경전과 책들을 빠짐없이 해제대상으로 했으며, 뜻과 내용을 개괄한 다음 매권의 내용을 간략하게 서술했다고 소개하고 있다.

민족고전연구소는 지난 80년경부터 대장경번역작업을 시작해 87년 4월 해제본 전25권을 1차로 출판한 후, 이를 3년뒤 다시 전15권으로 편집해 출판했다. 이 작업에는 3~40대의 소장학자 40여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대장경 번역을 위해 산스크리트어와 한문, 교리학, 문헌학 등을 체계적으로 공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는 동국대학교 역경원에서 대장경번역작업을 한창 진행중이며, 지난 65년 한글대

◇(표1) 북한의 사찰 현황

경기도	시용사, 안화사, 화장사
강원도	마사연사, 명적사, 보덕암, 보현사, 불지암, 석왕사, 용공사, 정암사, 표훈사
황해남도	강서사, 묘음사, 신광사, 원정사, 원정사, 자해사, 구암사, 현암
황해북도	성불사, 귀진사, 원명사, 심원사
평안시	역법사, 동공강사, 법운사, 흥화사, 정통사
평안남도	법흥사, 안국사, 정진사, 향암사
평안북도	개원사, 금강암, 금광사, 능인암, 보경사, 보현사, 불영사, 상원암, 처운사, 심원사, 양화사, 영산전, 축성전, 칠성암, 하근노암, 화창암
양강도	종통사
함경남도	가루사, 개심사, 광제사, 동덕사, 양천사, 용흥사, 정광사
함경북도	관해사, 쌍계사, 정계사

장경이라는 이름으로 아합부 제1권을 발간한 이후 지금까지 1백36권이 출판됐다. 역경원은 오는 97년말까지 4년동안 1백14권을 추가로 번역해 총 2백50권으로 '한글대장경'전집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전집 2백50권에는 고려대장경과 고려대장경에 포함되지 않은 경전, 그리고 우리나라 고승들의 저술도 포함될 예정이다. 역경작업에는 전문가 90명이 장경번역위원으로 위촉돼 참여하고 있다.

'한글대장경'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북한 팔만대장경해제는 완성이 아닌 것으로 추측된다.

책머리에 원전의 품체계와 중심주제 내용을 서술했다고 밝혔지만 내용상 중요한 부분을 생략해서 번역한 것으로 보인다. 지적이다.

이 해제본이 앞으로 완역을 하기 위한 준비작업 즉 목록의 정리인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아직까지 대장경을 완역했다는 증거는 없다. 다만 해제의 활자크기나 책의 분량으로 아 불해 완역을 했을 경우 전집의 분량은 적어도 2백권을 넘을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다.

어쨌든 북한의 팔만대장경해제는 일단 쉽게 써어진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해제본수입을 추진한 법타스님이 난해하고 복잡한 뜻을 지닌 불교용어를 쉬운 말로 적어서 불교의 진수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고 평가하고 있다.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소 신규택박사는 두 한글경전에 대해 '한글대장경'이 세로쓰기인데 반해 '팔만대장경해제'는 가로쓰기이며, '한글대장경'이 일본 '신수대장경'과 비슷하게 아합부를 앞세운 데 반해 '팔만대장경'은 고려대장경의 순서와 같이 반

아부를 먼저 실고 있어 나름대로 불교경전의 사상적인 위치를 정리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 경전의 핵심을 간단히 요약하면서도 원래 뜻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한 흔적이 눈에 띄며 해제의 수준도 일단 우수한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에반해 역경원의 한 관계자는 '한글대장경'이 경의 저자와 제작연대 혹은 한 경이 전체 경에서 차지하는 중요성과 종교적인 가치등을 설명하고 있는데 반해 '팔만대장경해제'는 단순히 몇권에는 어떤 내용이 있다고만 설명하는데 그치고 있어 두 한글경전을 단순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말한다.

주제사상으로 모든 사회이념을 대신해 왔던 북한이 불교의 총체적인 교리를 담은 대장경을 한글로 편찬한 사실은 무척 흥미롭다.

이 책의 출판이 북한의 일반 주민들에게 읽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허더러도 또는 불교의 사상을 전파하기위한 목적이 더우며 아 아니라 허더러도 북한출판문화의 수준을 알 수 있고, 주제사상 이외의 사상체계에 대한 이해정도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일로 여겨진다.

팔만대장경의 한글출판을 북한의 종교정책 특히 불교정책의 변화로 이해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 이를 계기로 남북한 고려대장경해제를 위한 공동세미나 개최를 추진하고 서로 연구 노하우를 교환할 수만 있다면 남북한 불교교류의 한 전기로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는 남북간에 종교교류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분야에서 교류가 유보되고 있다. 앞으로 남북 당국자간의 정치적인 해결여하에 따라 남

달 하나 천가에

예술을 이해하는 젊은이들에게



우리는 때로는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약속되어진 단어의 의미가 새삼스럽게 자신의 삶을 해석하고 정리하는데에 요긴한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을 경험한다.

축제의 성황으로서만 그 존재가치를 지니는 서양의 민속무용에 비해 고대사에서부터 그 독자적 영역을 지니왔던 우리의 전통춤은 사회의 변화에 가장 빠른 반응을 보였던 예술행위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감오경장을 기해 밀려들어온 극장무대의 도입으로 다각적이면서, 평면적이던 전통춤의 형식은 일면적으로 집중화되었고, 하체의 움직임이 극도로 발달된 발레와 자유로운 표현을 추구하는 현대무용의 영향으로 인한 춤사위의 변화 또 시대의 조류에 따라 필연적인 것이 되었다.

한국무용이 전통의 고수와 현대화라는 이중적 과제를 끌어머리를 앞둔 서양에서 비롯된 발레와 현대무용을 하는 이렇듯 무용인 역시 유리화된 발레, 한국적인 현대무용을 펼칠 것을 겪고 있다.

이는 한국춤이라는 독자적인 영역이 지켜온 이 시대의 필연적인 상황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용은 신체운동이나 단편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예술로서 인간세계를 아름답고 조화있게 표현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인간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능력을 교육적인 가치로 두는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신체를 통하여 감정의 화·노·애·락을 정서적이며 신체적으로 유연하게 나타내는 예술이기에 단일한 생활보다는 끊임없는 추구하고 신체적 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어려움은 극복한다는 것은 도전적이고 힘든 모험의 부당하기에 살아감의 일상에서 새로운 시각을 갖고 당면된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가는 진솔한 이야기를 풍부한 창작력을 빌어 매일 매일 끊임없이 관찰하고 깊이있는 사고력으로 자신을 단련시켜야 할 것이다.

춤이란 인간이 주체가 되는 예술이므로 춤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늘 노력하는 자세를 학생들에게 강조하며, 무용가가 전히 특별한 예술행위자가 아니며, 모든 사람들이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듯, 성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한 인간일 뿐이라고 예술가 이전에 교육자로서의 사명감을 느끼게 한다.

단단한 굳은 평위에 건물이 세워지듯이 우리 또한 튼튼한 토대위에 즉, 스스로의 배움과 반성과 협조와 타협으로 무용인 스스로의 발전과 명예와 아름다움이 영원히 보존될 수 있을 것이다.

순간적인 예술인보다 다음세대에 영원히 기억되는 참된 예술인이 되고자 스스로 노력하기를 모든 예술인들에게 드리고자 한다.

손재현

사범대 체육교육과 교수

문화단신

새로 나온 책

◇빈천시오, 살아서 증언하라... 82년 3월 부산 시민위원회 방화사건으로 사형선고를 받았다가 무기로 감형되고 옥중 결혼했던 김현장의 육필수기. 제1부는 광주 민중항쟁을 통한 반미의식의 제기와 실형과정을 담았고 제2부는 부산 미문화원 방화 사건과 그이후의 일들- 도괴생활-체포-안기부의 수갑과정과 재판-사형선고 등을 특유의 굵직하고 투박한 어투로 그려냈다. (사회평론) 6천9백원

서평교

불교방송국 보도국 기자



렌즈관리 용품도 중외제약입니다



SPC액으로 렌즈를 세척하고나면-
“단백질까지도 깨끗이 없어집니다”

SPC 하나로 두가지를 끝내세요!
세척은 잘되는데 과연 단백질까지 제거해줄까?

이런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SPC가 확신을 드립니다. SPC는 3가지 바이오성 계면활성제의 상승작용으로 렌즈세척은 물론 단백질이 껍질을 주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세척으로 단백질까지도 제거해주는 SPC의 두가지 동시해결기능은 엄격한 실험결과를 통해 입증된 바 있습니다.

자기전에 SPC! SPC를 사용하면 별도의 단백질제거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직접 써보셔야 알 수 있습니다.

편한 눈 깨끗한 렌즈- 중외 SPC/

- 3가지 바이오성 계면활성물질 상승보완작용으로 세척 및 단백질제거 두가지를 동시에 해결해 줍니다.
- 렌즈의 오염을 방지 눈이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 행구기 쉬운 수용성 취침전 사용하면 렌즈착용감이 부드러워 하루종일 눈이 편안합니다.



중외제약의 렌즈관리용품 시리즈
● 세척 및 단백질제거 SPC ● 1초의 단백질제거제 사본도정
● 1일 1회 세척용 용액 SPC ● 보온소독용 뷰티온
● 렌즈보온용 용액 SPC ● 렌즈보온용 뷰티온



● 수입원 제품 ● 렌즈관리용품 ● W 5,500 (2개입)

◇학내 부설연구소 진단

재정·인력난으로 논문집 발간정도가 고작 연구비 지원과 전문적 연구인력 확충이 시급

지난 81년 9월에 설립된 신라문화연구소, 사찰조경연구소, 한의화연구소, 의화연구소 등 총 4개 부설연구소가 재정적·인적 어려움으로 인해 제기능 및 설립취지를 살려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학내 부설연구소의 주요사업내용은 조사·연구사업·논문집 및 자료집 발간사업, 학술회의와 학술교류 사업 등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학교로부터의 연구비 지원과 전문적인 연구인력의 부족으로 여러가지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첫번째 개선책으로 연구비 지원 확충 방안이다. 올해 책정된 각 연구소의 예산은 사찰조경연구소와 한의화 연구소가 각각 2백만원, 의화연구소와 신라문화연구소가 각각 1천만원과 1천2백만원 정도이다. (도표 참조)

그러나 각 연구소 관련 교수들은 "이정도 예산으로는 장기적인 연구 계획미련은 불가하고, 1년단위의 논문집 발간과 학술회의 개최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두번째, 연구인력 부족을 해결하는 것이다.

규정에 의한 연구소의 구성은 소장, 간사, 연구원 및 조교 등으로 돼 있으나 실제로 연구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적인 연구인력은 없는 형

(연구소의 1년 예산 비교)

경주 캠퍼스		서울 캠퍼스	
연구소	예산	연구소	예산
신라문화연구소	1천2백만원	불교문화 연구원	4천5백만원
의화연구소	1천만원	한글문화 연구소	1천4백만원
사찰조경연구소	2백만원	학생생활 연구소	9백만원
한의화연구소	2백만원		

편이다. 또한 교수들은 수업과 개인 연구 등으로 인한 업무과중을 이유로 행정적인 결과처리만 할 뿐 대부분의 실무가 간사나 조교에 의해 처리되고 있다.

세번째는 연구소 공간 문제이다. 현재 사찰조경연구소와 한의화연구소의 경우 연구소 마련된 공간이 없다. 연구소의 이름만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신라문화연구소) 신라문화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한국문화의 위치를 재조명함을 목적으로 제일 먼저 설립된 연구소이다.

(신라문화연구소) 신라문화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한국문화의 위치를 재조명함을 목적으로 제일 먼저 설립된 연구소이다.

(사찰조경연구소) 불교종립대학이라는 특수성에 의해 한국전통사찰의 경관해석 및 공간구성기법연구를 통하여 사찰의 전통조경을 밝혀내기 위해 지난 74년에 설립되어 82년에 경주캠퍼스로 이전했다.

의 인원과 1천2백만원의 연구비 지원으로 매년 2권의 논문집 발간과 학술회의 개최, 외국인 강사 초청강연회 및 전제교수 대상으로 신라문화유적답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간사 김복순(국사학)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신라문화 연구를 하는 곳으로 우리 학교가 유일하다. 그런만큼 연구원과 예산확충을 통해 국제화학회회원의 세미나를 개최해야 한다"고 앞으로의 방향을 밝혔다.

(사찰조경연구소) 불교종립대학이라는 특수성에 의해 한국전통사찰의 경관해석 및 공간구성기법연구를 통하여 사찰의 전통조경을 밝혀내기 위해 지난 74년에 설립되어 82년에 경주캠퍼스로 이전했다.

녹아원

불교아동학과 학생회장 조은경 양 부설유치원 건립 앞두고 마찰 장소·시기 등 학교측과 의견대립



"모르는 사이 학교측에서 유치원 부지를 정해놓고 가설계까지 나온 상태였어요." 조은경양은 어떻게 통대병원 앞 농막에 유치원을 세울 수 있느냐는 인간이 성장하는 동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유아기인 만큼 최적의 장소를 찾고 있는 중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94년 등록금 협상 복지에 합의되면서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던 불교아동학과 부속 유치원 건립 문제는 첫 단계를 부지선정에서부터 학교측과 의견이 맞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이다.

"최적의 장소는 정각원 옆 연못 부근이에요. 신채명 정사발달을 위해서 숲과 정각원이 근접해 있어야 하고, 아이들과 학생들이 어는 정도 분리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한편 지난 89년 합의서 조인때의 유치원 건립 예산은 5억여원 정도였으나 5년이 지난 현재 3년간 1억원으로 정립해 97년 3억원의 예산으로 유치원을 건립하는 것이 학교측의 입장이라고 한

다. 반면 불교아동학과측은 94년 부지 확보, 95년 예산마련, 적어도 96년에는 유치원이 건립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동시에 또 다시 마찰을 빚고 있다.

"여학생들만 있는 과라고 외부에서는 다소 무시하기도 하지만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유치원 건립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어 힘이 돼요"라고 말하고 "올해 안된다면 내년을 투자해서라도 요구 사항을 이행할 것"이라고 다부진 각오를 밝힌다.

전국 2백60여개의 불교유치원들을 총괄하는 중심적인 역할과 유치원 교사들의 재교육 현상으로로서의 자리매김을 목표로 오늘도 부지런히 학생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

불교종립 유치원의 중심으로, 교사들의 재교육장으로, 불교아동학과 부속 유치원 건립에 대한 명목이 분명한 만큼 이제 학교측도 '발등에 불이 떨어질'까진 아닌 성의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윤전화 기자)

한의대 특강제 실시

경주캠퍼스 한의대 학생회(회장=이기택·한의화)는 '제1회 특강제'를 지난 24일부터 오는 27일까지 한의화관(M301)에서 전 동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특강제는 △세음바탕(24일)=오후 1시, 금오 김홍경 선생의 '한의학이란 무엇인가' △잇는마당(25일)=오후2시30분, 연세대 최종덕 교수의 '신철학 사조의 비판적 이해' △퍼는마당(26일)=오후4시, 27일 오전11시 동원 이정래 선생의 '의역동원적 동양의학' △잇는마당(27일)=오후2시30분 우원 박인상 선생의 '사상의학의 임상적 응용'이라는 주제로 일정이 진행된다.

이기택 회장은 "이번 특강제는 새로운 방향에서 다양한 견해를 얻기 위함"이라고 의의를 밝혔다.

지역개발대학원 체육대회 개최

지역개발대학원(원장=김병기·국제경제학)은 오는 29일 원생 및 가족, 동문, 교직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문무관에서 '제5회 지역개발대학원 체육대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학군단 작품전 개최

학군단(명예위원장=김동락·국제경제학)은 지난 23일부터 오는 27일까지 도서관 지하에 위치한 학군단 본부에서 작품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김동락 명예위원장은 "후보생 소집체발과 일반후보생들의 유대강화를 위한"이라고 의의를 밝혔으며, 이번 작품전에는 60여명의 후보생들이 자유주제로 출품한 그림, 만화, 시, 서예 등을 선보이게 된다.

한편, 오는 28일 학군단은 '제14회 연꽃제를 문무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취재부)

5.18 광주민중항쟁 추모제 및 기념식

광주문제 책임자 35명 고소·고발 촉구

5.18광주민중항쟁 제14기 추모제 및 기념식이 지난18일 오전10시 망월동묘역에서 회생자유족과 5월단체인화우들에 대한 철저한 선전의 식과 작업을 선행해 내면서 학우들의 뜻을 모아 부활을 준비해 왔던 과정이었습다. 그것이 바로 5개월 동안 투쟁을 계속해 올 수 있었던 힘이었다고 생각한다.

U·R국회비준동의 저지를 위한 총투표, 한총련 구국 대대시 투쟁 등을 통해서 미국반대, 김영삼 정부 반대 투쟁이 곧 썬투쟁이라는 명확한 전선의 지점들을 그려 냈다고 생각하며 그것은 청년학생들의 지점이 아니라 범국민적 공간에 있다고 생각한다.

썬수인 개방은 불가피하다 라는 여론은 기성인론의 호도와 정부의 기만적 논리에 근거한 것이

로써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여 민주정령들의 벗을 위로하자"고 촉구했다.

유준상민주당 대표의원은 추모사를 통해 "현 정부의 기만적인 광주문제해결태도에 맞서 기필코 진상을 밝힐것"이라며 △전두환·노태우 전직대통령의 공개사과 △광주민중항쟁특별법제정 △광주관련재산 원상복구 △5.18국가기념일 제정등을 최소한의 요구로 천명했다.

또한 이날 오후4시 전남도청앞 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2부 기념식은 △개회선언 △국민의례 △대회사 △내빈소개 △경과보고 △5.18 국민위원회 사업보고 △추모사의 순으로 약2시간동안 계속됐다.

5.18기념사업추진위원회 강신석위원장은 대회를 통해 "80년 광주도 발등에 불이 떨어질까진 아닌 성의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윤전화 기자)

◇제2기 한총련의장 김현준군을 만나 "운동은 철저히 백만의 대중운동이어야 합니다"



제2기 한국총학생회연합(이하 한총련) 출범식이 오는 27일부터 3일간 조선대에서 열린다. 이를 앞두고 다가오는 2기 한총련 출범식을 맞아 김현준(부산대총학생회장)의장을 만나 한총련의 나아갈 바에 대해 들어본다.

—한총련 출범식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요즘 근황은.

—한총련 의장으로서 전국 한총련 소속 2백2십개 대학과 침관대학에 대한 항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지 지도활동과 한총련 정치 노선을 바로 백만청춘에 의해서 내어오기 위함 이죠.

전국 한총련 소속대학에 5월투쟁의 의미와 한총련 출범식 일정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5개월동안 진행되어온 썬투쟁에 대해 정리한다면.

—5개월 여간의 썬투쟁은 전부 중심의 선동적 투쟁이 아니라 백만화우들에 대한 철저한 선전의 식과 작업을 선행해 내면서 학우들의 뜻을 모아 부활을 준비해 왔던 과정이었습다. 그것이 바로 5개월 동안 투쟁을 계속해 올 수 있었던 힘이었다고 생각한다.

U·R국회비준동의 저지를 위한 총투표, 한총련 구국 대대시 투쟁 등을 통해서 미국반대, 김영삼 정부 반대 투쟁이 곧 썬투쟁이라는 명확한 전선의 지점들을 그려 냈다고 생각하며 그것은 청년학생들의 지점이 아니라 범국민적 공간에 있다고 생각한다.

썬수인 개방은 불가피하다 라는 여론은 기성인론의 호도와 정부의 기만적 논리에 근거한 것이

며 한총련은 농민,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을 벌여왔고 그 속에서 국회비준 저지를 현실화 해낼수 있는 단계까지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2기 한총련 사업기조 중 지도이념이라면.

—전대법 6년의 역사, 한총련 1년의 역사를 계승해 내는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총련 운동은 철저히 백만의 대중운동 이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백만이 한총련 조직의 주인이며 백만이 자주, 민주, 통일의 투쟁을 일구어 나가는 주체라는 것이 한총련 지도이념의 가장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백만에 근거한 압도적 다수의 대중운동, 그것을 벌여내기 위한 것이 한총련 운동의 방향입니다.

—한총련 5월 사업의 중심내용이려면.

—5월사업의 가장 중심이 되는 사업은 한총련 출범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총련 출범식을 준비해 나가는 과정이 5월사업의 과정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5월의 한총련은 광주민중항쟁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해 총력투쟁을 가질 것입니다.

—보급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중국대학이 여러분께 먼저 한총련이 벌리고 있는 94년 투쟁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3월29일, 30일 백만화도 총투표에서 39만명이 참가 했으며 4월8일, 9일 동맹휴업 투쟁 그리고 시인과 함께하는 가두투쟁 등을 벌여 왔습다. 1백80여개 대학이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동맹휴업투쟁을 벌였다는 것은 정말 빛나는 승리를 수반 했지만 민족의 자주권, 민중의 생존권의 문제이며 우리 청년 학생들이 짊어여야 하는 문제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것 같습니다.

5월을 맞이해 국회비준저지와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타파해 나가고 조국의 평화와 민족대단결에 근거한 자주적 통일을 내어와야 하는 청년의 역할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청년의 의지가 한총련 출범식에서 모아지기를 바랍니다.

백만청춘의 평화적 물결이 광주를 휩싸는 그런 출범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국대 학우 여러분 출범식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영 기자)

A4용지를 23초만에— 프린트 시간을 절반으로 줄였다!

기술의 현대 세계의 현대

현대프린터 제노비아 6410

컴퓨터 만큼이나 중요한 프린터 선택 - 잉크젯 프린터라고 모두 같지는 않습니다. 인쇄속도, 선명도, 호환성, 편의성, 경제성까지 하나하나 비교해 보고 결정하십시오. 이제, 프린터도 현대 제노비아가 앞서갑니다.

현대 제노비아, 128노즐·450CPS로 잉크젯 프린터의 하이스피드 시대를 연다!

- 기존 잉크젯보다 2배이상 빠른 고속인쇄! 128노즐과 H/W의 한결로 450CPS의 고속인쇄를 실현, 동급 잉크젯보다 2배이상 빨라졌습니다.
- 레이저급의 뛰어난 고선명 해상도! 정단 비발광식 레이저급 300DP의 해상도를 구현, 문서, 그래픽 등을 깨끗하고 풍부하게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어떤 S/W도 소화하는 완벽한 호환성! KS, KSSM, HP Deskjet 등의 애플레이션 내장으로 워드프로세서, 그래픽, 스프레드 시트, CAD 등 어떤 작업에도 적합합니다.
- 애플레이션의 선택도 합면의 키조작으로! 자주 사용하는 기능은 모두 키조작 한번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애플레이션의 변경도 키조작만으로 가능합니다. (국내최초)
- 레이저 방식의 56KB 대용량 입력 버퍼! 호스트에서 전송되는 데이터를 레이저 방식의 56KB 대용량 버퍼에 저장한 후 인쇄, 호스트의 운용을 극대화하였습니다.
- 자동/수동은 물론, OHP 필름까지 다양한 용지 운용! 최대 100매까지의 자동날장공급에서 A4, 봉투 및 OHP 필름까지 다양한 용지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성능만큼 우수한 경제성! 합리적인 가격뿐 아니라 잉크 카트리지의 비용까지 저렴, 유지비가 거의 필요없는 경제형 프린터입니다.

현대프린터 전문점을 모집합니다.
문의처) 398-4423, 4

현대전자

유통영역부
서울시 중구 금성동 66 (현대전자 B/D 12층)
TEL. 398-4423

강남점 : 강남구 역삼동 719-6 대림빌딩
전화 528-9340-1

부산점 : 부산시 부산진구 진동동 630-4
전화 807-1232, 646-2000

대구점 : 대구지하철 1호선 수성역 592-30
전화 751-0204, 958-2000

대전점 : 대전광역시 동구 문정동 13-25
전화 625-8122, 224-2000

경주점 : 경주시 서구 동명동 415-12
전화 365-2055, 64-600

울산점 : 울산시 남구 위동 1362-2 신원빌딩 2층
전화 61-3381

